

꽃동네대학교 개교 2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카리타스 정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기조강연 Keynote Speech :	Presentation 2 :	Presentation 3 :	Presentation 4 :	Presentation 5 :	Presentation 6 :
Dr. Patrick Tyler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신완식 의무원장 (요셉의원)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 요셉의원"	박영만 수사 (가평 꽃동네 정신요양원) "사회복지기관에서 카리타스 실천"	정복희 원장 (원주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삶의 현장에서 카리타스 함께 살기: 찾아나서다. 다가간다. 함께 살다."	김진의 부장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 사무국) "카리타스 정신으로 복지관 사회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성과: 기쁨과 갈등"	Daniela Blank, Ph.D. "Christian Social Work in Germany: Social Welfare System and German Caritas"

일시: 2020.10.29.(목) 09:30 ~ 17:00

주최: 꽃동네대학교

주관: 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복지연구소

후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장소: 꽃동네대학교 강태원사랑관 2층 컨벤션홀

방법: Zoom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

문의: caritas@kkot.ac.kr, 043-270-0119



### 국제학술대회 일정

- 09:30 ~ 09:40 개회식 / 오전 사회 김승주 교수
- 09:40 ~ 10:00 환영사 / 김성우 소장 (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복지연구소)
- 10:00 ~ 10:50 기조연설 / Dr. Patrick Tyler (Boys Town, USA) / 통역 및 토론 김미숙 연구교수(꽃동네대학교)
- 10:50 ~ 11:00 휴식
- 11:00 ~ 11:50 발표 #2 / 신완식 의무원장(요셉의원) / 토론 강성례 교수(꽃동네대학교)
- 11:50 ~ 12:40 발표 #3 / 박영만 수사(가평 꽃동네) / 토론 도건창 교수(꽃동네대학교)
- 12:40 ~ 14:10 점심식사 / 오후 사회 도건창 교수
- 14:10 ~ 15:00 발표 #4 / 정복희 원장(원주 보금자리) / 토론 김승주 교수(꽃동네대학교)
- 15:00 ~ 15:50 발표 #5 / 김진의 부장(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 토론 강석임 교수(꽃동네대학교)
- 15:50 ~ 16:00 휴식
- 16:00 ~ 16:50 발표 #6 / Daniela Blank, Ph.D. (Univ. Freiburg, Germany) / 통역 및 토론 김성우 교수(꽃동네대학교)
- 16:50 ~ 17:00 마무리 및 폐회식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to Celebrate the 22nd Anniversary of Kkottongnae University

##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Keynote Speech :	Presentation 2 :	Presentation 3 :	Presentation 4 :	Presentation 5 :	Presentation 6 :
Dr. Patrick Tyler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신완식 의무원장 (요셉의원)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 요셉의원"	박영만 수사 (가평 꽃동네 정신요양원) "사회복지기관에서 카리타스 실천"	정복희 원장 (원주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삶의 현장에서 카리타스 함께 살기: 찾아나서다. 다가가다. 함께 살다."	김진의 부장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 사무국) "카리타스 정신으로 복지관 사회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성과: 기쁨과 갈등"	Daniela Blank, Ph.D. "Christian Social Work in Germany: Social Welfare System and German Caritas"

일시: 2020.10.29.(목) 09:30 ~ 17:00

주최: 꽃동네대학교

주관: 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복지연구소

후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장소: 꽃동네대학교 강태원사랑관 2층 컨벤션홀

방법: Zoom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

문의: caritas@kkot.ac.kr, 043-270-0119

### PROGRAM

09:30 ~ 09:40	*Opening Remarks : Prof. Kim, Seung Ju (Moderator, morning session)
09:40 ~ 10:00	Welcome Address : Prof. Kim, Sung-Woo (Director of Caritas Theology / Social Welfare Institute)
10:00 ~ 10:50 (U.S.A 28th 8:00 p.m.)	Keynote Speech :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Dr. Patrick Tyler (Director of Boys Town Child and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USA) Interpretation & Discussion: Prof. Kim, Mee Sook
10:50 ~ 11:00	Coffee Break
11:00 ~ 11:50	Presentation 2 : "St. Joseph Clinic, Working with the Poor" Dr. Shin, Wan Shik (Director of St. Joseph Clinic) Discussion: Prof. Kang, Sung-Ye
11:50 ~ 12:40	Presentation 3 : "Practice of Caritas at the Social Welfare Center" Bro. Park, Young-Man (Phillip) (Director of Gapyeong Kkottongnae Mental Sanatorium) Discussion: Prof. Do, Gunchang
12:40 ~ 14:10	Lunch Break / Prof. Do, Gunchang (Moderator, afternoon session)
14:10 ~ 15:00	Presentation 4 : "The Practice of Caritas: Searching, Reaching out, Living in Community." Ms. Jung, Bok Hee (Director of Caritas Wonju Samcheok-Si Dogye Bogeumjari "Nest") Discussion: Prof. Kim, Seung Ju
15:00 ~ 15:50	Presentation 5 : "A Successful Case of Social Work Exemplifying Caritas Spirit: Joy and Conflict" Mr. Kim, Jin Eui (Manager of Caritas Daegu Secretariat) Discussion: Prof. Kang, Seok-im
15:50 ~ 16:00	Coffee Break
16:00 ~ 16:50 (Germany 29th 8:00 a.m.)	Presentation 6 : "Christian Social Work in Germany: Social Welfare System and German Caritas" Daniela Blank, Ph.D. (Univ. Freiburg, Germany) Interpretation & Discussion: Prof. Kim, Sung-Woo
16:50 ~ 17:00	Wrap up & Closing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 PROGRAM

Time	Description	Remarks
Oct. 29 <sup>th</sup> 09:30-09:40	Opening Remarks	moderator: Prof. Kim, Seung Ju
09:40-10:00	Welcome Address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Prof. Kim, Sung-Woo (Director of Caritas Theology / Social Welfare Institute)	
10:00-10:50 U.S.A 28 <sup>th</sup> 8:00 p.m. Online Zoom	Keynote Speech :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Dr. Patrick Tyler (Director of Boys Town Child and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USA) Interpretation & Discussion: Prof. Kim, Mee Sook	
10:50-11:00	Coffee Break	
11:00-11:50	Presentation 2 : “St. Joseph Clinic, Working with the Poor” Dr. Shin, Wan Shik (Director of St. Joseph Clinic) Discussion: Prof. Kang, Sung-Ye	
11:50-12:40	Presentation 3 : “Practice of Caritas at the Social Welfare Center” Bro. Park, Young-Man (Phillip) (Director of Gapyeong Kkottongnae Mental Sanatorium) Discussion: Prof. Do, Gunchang	
12:40-14:10	Lunch Break	
14:10-15:00	Presentation 4 : “The Practice of Caritas: Searching. Reaching out. Living in Community.” Jung, Bok Hee (Director of Caritas Wonju Samcheok-Si Dogye Bogeumjari “Nest”) Discussion: Prof. Kim, Seung Ju	moderator: Prof. Do, Gunchang
15:00-15:50	Presentation 5 : “A Successful Case of Social Work Exemplifying Caritas Spirit: Joy and Conflict” Kim, Jin Eui (Manager of Caritas Daegu Secretariat) Discussion: Prof. Kang, Seok-im	
15:50-16:00	Coffee Break	
16:00-16:50 Germany 29 <sup>th</sup> 8:00 a.m. Online Zoom	Presentation 6 : “Christian Social Work in Germany: Social Welfare System and German Caritas” Daniela Blank, Ph.D. (Univ. Freiburg, Germany) Interpretation & Discussion: Prof. Kim, Sung-Woo	
16:50-17:00	Wrap up & Closing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 국제학술대회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월 29일 09:30-09:40	개회식	오전 사회: 김승주 교수
09:40-10:00	환영사 “카리타스 정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김성우 교수 (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복지연구소장)	
10:00-10:50 미국 시간: 28일 오후 8시 온라인 Zoom	기조연설 “카리타스 정신으로 함께 하는 Boys Town의 성공 사례” Dr. Patrick Tyler (Director, Boys Town Child and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USA) 통역 및 토론: 김미숙 연구교수 (꽃동네대학교)	
10:50-11:00	휴식	
11:00-11:50	발표 2: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 요셉의원” 신완식 의무원장 (요셉의원) 토론: 강성례 교수 (꽃동네대학교)	
11:50-12:40	발표 3: “사회복지기관에서 카리타스 실천” 박영만 필립보 수사 (가평 꽃동네 정신요양원) 토론: 도건창 교수 (꽃동네대학교)	
12:40-14:10	점심식사	
14:10-15:00	발표 4: “삶의 현장에서 카리타스 함께 살기: 찾아나서다. 다가가다. 함께 살다.” 정복희 원장 (원주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토론: 김승주 교수 (꽃동네대학교)	오후 사회: 도건창 교수
15:00-15:50	발표 5: “카리타스 정신으로 복지관 사회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성과: 기쁨과 갈등” 김진의 부장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 사무국) 토론: 강석임 교수 (꽃동네대학교)	
15:50-16:00	휴식	
16:00-16:50 독일 시간: 29일 오전 8시 온라인 Zoom	발표 6: “독일 내의 그리스도교 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와 독일 카리타스” Daniela Blank, Ph.D. (Univ. Freiburg, Germany) 통역 및 토론: 김성우 교수 (꽃동네대학교)	
16:50-17:00	마무리 및 폐회식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Keynote Speech 기조연설

###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카리타스 정신으로 함께 하는 보이스타운의 성공 사례”




Dr. Patrick Tyler  
(Director of Boys Town Child and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USA)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Slide 1: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Patrick Tyler, PhD, LIMHP, LPC  
Director of Research Translation  
Boys Town Child and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October 2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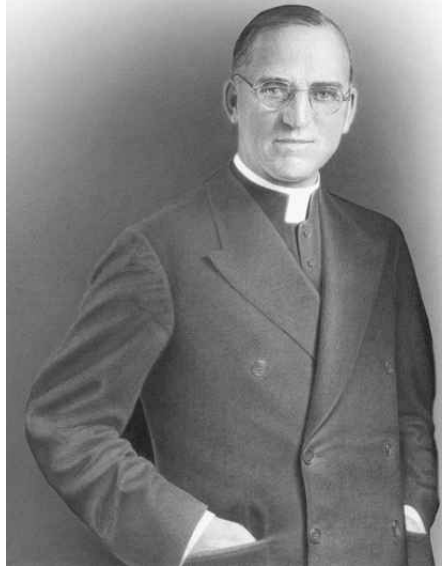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Boys Town에 위치한 Boys Town 아동 및 가족 번역연구센터 책임자 Patrick Tyler 박사입니다. 저는 25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해 왔고, 현재 임무는 어린이와 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실무에 맞게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꽃동네대학교 2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초청해주신 귀 대학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꽃동네대학교의 사명에 감명을 받았는데, 저 자신은 신학적인 경험이 없어서 “카리타스 정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것을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카리타스)”과 1917년 Boys Town을 설립하신 Flanagan 신부님이 시작한 놀라운 자선활동 정신을 목격해 온 임상가(clinician)이자 연구원(researcher)입니다. Boys Town은 현재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Flanagan 신부님이 시작한 사명과, 그것이 오늘날 Boys Town에서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Flanagan 신부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연구소의 연구 증거에 맞추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Slide 2:



**Father Edward Joseph Flanagan**  
**Servant of God**  
**(1886-1948)**

Founded Boys Town in 1917 for children of all races, religions, & social classes.

Visited Korea, Japan, the Philippines in 1947 and Austria and Germany in 1948 to assess the post-WWII needs of children by request of President Truman. Fr. Flanagan died in Germany in 1948 during this mission.

The canonization process started for Fr. Flanagan in 2012.

BOYS TOWN

“하느님의 종” Edward Joseph Flanagan 신부는 1886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04년 미국에 도착하여 가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목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지만, 곧 그는 “불량” 소년들을 도와 노숙자를 예방하는 사목에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17년 오마하 시내에 오마하 Boys Town을 세웠으나 곧 그의 소년들을 오마하 외곽의 Overlook Farm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움이 필요한 소년들의 수가 많았고, 또한 신부님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모든 인종, 종교 및 사회 계층의 소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후, Flanagan 신부님의 Boys Town은 오마하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국가적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Flanagan 신부님은 트루먼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1947년과 1948년,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욕구 사정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신부님은 1947년 한국에 방문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운명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운명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의 평화에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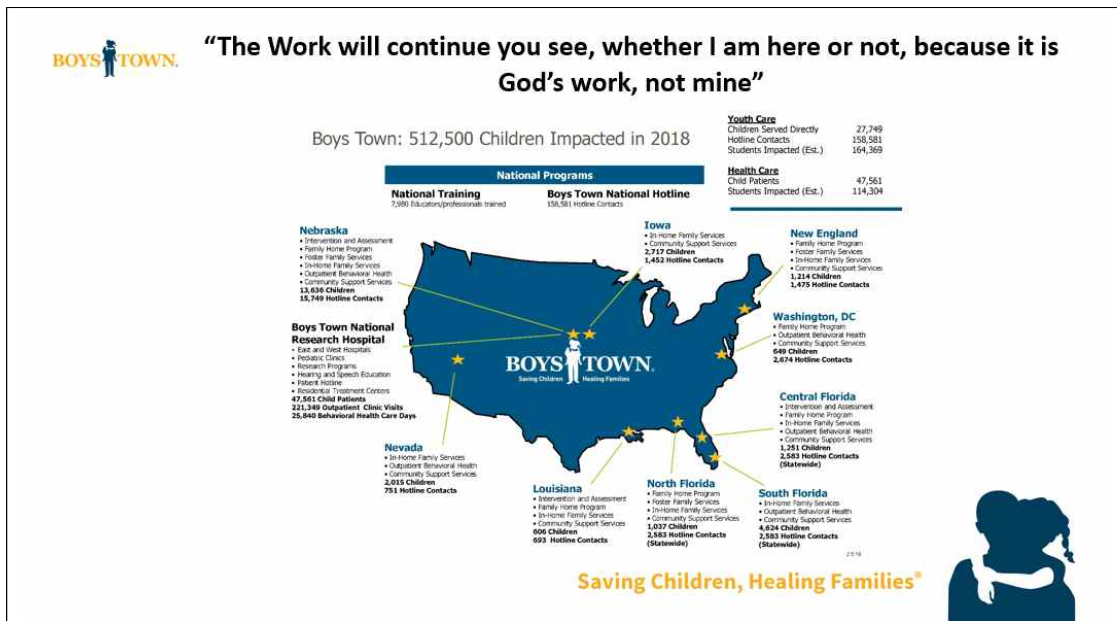
그래서 오늘 우리가 COVID-19 라는 또 다른 세계적 비극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평화와 자선의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함께 여기에 모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후, Flanagan 신부님은 유럽 어린이들의 전쟁 후 상황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Flanagan 신부님은 1948년 독일 여행 중 심장마비로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은 2012년에 시성(諡聖)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신부님의 어록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어록들은 오늘도 Boys Town에서의 업무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탁월함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한 단순한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Slide 3:



“내가 여기 있든 없든, 사목(the Work)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의 사목이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신부님의 사목은 그의 생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Flanagan 신부님은 아동복지에 관한 가르침, 편지글 및 강의록에서 꽤 많은 지침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Flanagan 신부님은 그분의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의 이상(ideals)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원칙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실무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으로 여전히 사용되므로, 이것들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Flanagan 신부님이 지적했듯이, 사목(the Work)이 신부님 자신보다 위대하므로 그것은 그가 떠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Boys Town은 미국과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5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가족이 Boys Town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핫라인, 부모교육, 가족 기반 서비스, 거주(생활)시설 프로그램, 사후관리, 국내 및 국제 훈련 서비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 관리 및 건강 관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Slide 4:

**“There are no bad boys/girls. There is only bad environment, bad training, bad example, bad thinking”.**

**Youth & Family Programs**

- Common Sense Parenting®
- Well-Managed Schools®
- In-Home Family Services®
- Intervention & Assessment Services®
- Family Home Program®
-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 On the Way Home® Aftercare

**BOYS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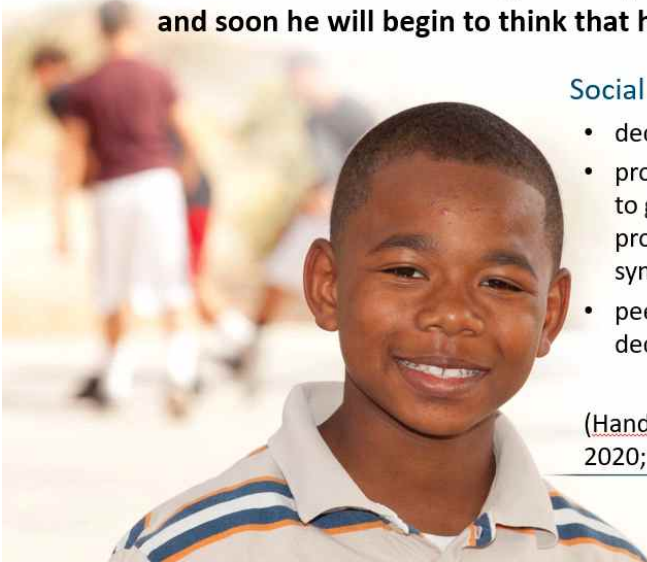


“세상에 나쁜 소년은 없습니다. 다만 나쁜 환경, 나쁜 훈련, 나쁜 모범, 나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Boys Town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적시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에게 중요한 **생활 기술(life skills)**을 가르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creating safe environments)하는 것이 모든 Boys Town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희망과 치유를 찾고 과거의 외상(트라우마), 비난 및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Slide 5:

**"Praise him for the little signs of improvement you see in him,  
and soon he will begin to think that he is not so bad after all."**



**Social Skills Training**

- decreased disruptive behaviors
- problem solving training was related to greater decreases in emotional problems in youth with trauma symptoms
- peer relations training was related to decrease in suicide ideation

(Handwerk et al., 2006; Tyler et al., 2020; Tyler et al., submitted manuscript)

**BOYS TOWN.**

"그에게서 작은 개선의 징후가 보이거든 칭찬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생각 보다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Boys Town의 아동 및 가족 지원은 사회학습이론과 응용행동분석 원리에 기반합니다. 사회학습이론은 임파워먼트(삶에 대한 통제감)와 자기효능감(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합니다. 응용행동분석은 아동의 행동 기능, 부적응 행동을 막기 위한 행동 원리, 아동의 건강한 대체 행동 교육 및 강화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처벌보다 긍정적인 강화와 "아이가 무언가를 잘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catching children being good)"를 강조합니다. Flanagan 신부님이 언급하였듯이,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면 좋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사회기술훈련은 Boys Town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돕는 주요 방법의 하나입니다.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서는 사회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우리 직원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러한 기술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과거에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것들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폭넓은 연구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구에 따르면, 친 사회적 기술에 기반한 사회기술 훈련은 파괴적인 행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정 사회기술에 대한 훈련이 특정 욕구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기술훈련은 트라우마(외상) 증상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적 고통이 대폭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거 프로그램에서 또래 관계 기술이 개선된 아이들의 경우에서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성, 충동성 및 물질사용 영역에서 어린이의 특정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기술훈련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Slide 6:



**“The important years’ in a child’s life are those when he or she is forming habits. During those years, men and women of the teaching profession, are to a great extent, sculptors, trainers, and refiners of the character of children.”**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 Significant gains in social skills and school adjustment
- Increased on-task behaviors during academic lessons
- Reduced office referrals and school suspensions
- Increased positive classroom atmosphere and teacher use of praise
- Increased teacher confidence and satisfaction

**BOYS TOWN.**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는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직에 종사하는 남녀 선생님들은 상당 부분 어린이 성격의 조각가, 훈련사 및 섬세한 정제사입니다.”

Flanagan 신부님은 모든 어린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의 힘이 모든 어린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1918년 Boys Town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육과 안전한 학교(환경)는 Boys Town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Boys Town은 직접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학군과 교육자들에게 Boys Town Well-Managed Schools 교과과정 사용법에 대한 훈련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생의 사회기술 향상, 학교 적응, 수업 중 집중력 향상, 소년비행 및 정학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칭찬이 증가하고, 학생 행동 관리가 향상되며, 자신감과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lide 7:

**“Eliminate idle time. A boy/girl given the proper guidance and direction-kept busy during their leisure or free-time will prove my statement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ad boy.”**

### Extracurricular Activities & Vocational Training

- Get children involved in sports, arts, clubs, and activities that allow them to express themselves in healthy ways.
- Provide vocational training that helps them develop marketable skills and pride in their abilities.



BOYS TOWN.

“(아이들이) 빈둥거릴 시간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가시간에 적절한 지도와 지시로 바쁘게 지내는 소년소녀는 “(세상에) 나쁜 소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진술이 옳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Boys Town은 모든 어린이가 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어린이를 위한 기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를 사귀고, 성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은 야구, 축구, 미식축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와 마칭 밴드, 합창단, 예술, 연극 및 다양한 클럽과 같은 과외 활동에 참여합니다. 청소년들은 훈련센터에서 간호, 목공, 용접, 요리 예술 및 자동차 기계와 같은 다양한 직업 기술을 배우으로써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갖추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재능을 발견하여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부심과 (삶의) 목적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 Slide 8:

“He ain’t heavy Father, he’s my brother”



BOYS TOWN

- Kids Helping Kids
- Decision-Making
- Self-Government
- Citizenship

**Saving Children, Healing Families®**

“그는 무겁지 않아요, 신부님, 그는 내 형제이니깐요.”

아이들이 서로 돕는 것은 초창기부터 Boys Town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Boys Town을 상징하는 동상은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날 동상은 소년과 소녀의 모습), 이는 Flanagan 신부님이 두 소년을 실제로 만난 일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소년 중 한 명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른 소년이 그를 안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들이 신부님을 지나갈 때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다른 소년을 안고 있는 소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좀 무거워지지 않니? 이때 소년의 유명한 대답이,

“그는 무겁지 않아요, 신부님, 그는 내 형제거든요.”

그는 생물학적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Boys Town 형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들이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연민(compassion)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Boys Town의 아이들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48개 이상의 주와 7개국에서 온 아이들이 Boys Town에 거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다른 아이들로부터 생활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Boys Town에서 함께 생활한 후 그들은 차이점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 서로 든든한 지원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또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서로 돕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일찍부터 Flanagan 신부님은 어린이들에게 자치운영권을 부여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Boys Town Village(마을)를 위해 자기들의 Boys Town Mayor(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참여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마을 공동체 운영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규칙이나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적절하게 非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자기를 옹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권장합니다.



## Slide 9:





"Every boy/girl must learn to pray, how he/she prays is up to him/her."

**Mo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 Religion
- Service to the Community
- Character Development



"모든 소년소녀는 기도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는 각자 (의 종교)에 달려 있습니다."

Flanagan 신부님은 가톨릭 사제였지만 모든 종교의 어린이를 위해 Boys Town을 설립했고, 모든 종교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의 **종교와 도덕적 및 영적 발달**은 오늘날 Boys Town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회가 제공됩니다. 우리 직원은 우리가 섬기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하지는 않으면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의 중요성을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우리 Boys Town 마을에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있고, 유대인과 무슬림 어린이들은 인근 회당과 모스크에 참석하며, 아메리칸 인디언 청소년은 sweat lodge라는 전통적인 공간에 참석합니다.

Boys Town 어린이들은 또한 스페셜 올림픽, 푸드뱅크 및 기타 자선 활동을 돕는 등 일년내내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무도회는 그들이 옷을 차려입고 노인을 위한 요양 시설을 방문하고 무도회 밤처럼 춤을 추는 인기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봉사, 인성 개발, 시민권은 Boys Town 아이들에게 심어진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 Slide 10:

**"Some of the most lasting influences in a child's personality development are those that are experienced, or caught, rather than learned through direct instruction."**

**Long Term Outcomes**  
(5 & 16-year follow-up of former youth)

- employment
- mental health
- emotion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 reduced rates of domestic violence
- higher rates of positive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than national norms



"아이의 성격 발달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영향들 중에 어떤 것들은 직접 교육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경험되거나 감지된 것입니다."

인성, 시민권 및 기술개발은 Boys Town에 사는 아동기 동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이러한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Boys Town의 서비스를 통해 얻는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전 멤버들의 증언에 따르면, Boys Town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SODAS였습니다. 이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약어인 상황(Situation), 옵션(Options), 단점(Disadvantages), 장점(Advantages) 및 해결책(Solutions)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이며,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Family Home 프로그램을 마친 아동들은 성인기에 취업률, 정신 건강, 정서적 지원 및 삶의 만족도가 국가 표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도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부모의 자녀와의 긍정적인 개입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 Slide 11:


**“The family must be at all times the dominating influence under which the child lives, grows, and learns the things that are for his welfare. Parents are bound down by a sacred contract to be a teacher by example to their child.”**

**Parent Training and Support**

- reduced caregiver strain
- improved child behavior & emotional regulation
- reduced adolescent substance use
- Improved family resources
- Improved family empowerment and self-efficacy
- Improve home placement stability

(Duppong Hurley et al., 2019; Mason et al., 2015; Mason et al., 2016; Trout et al., 2013; Trout et al., 2020)

**BOYS TOWN.**



“가족은 자녀가 자신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살아가고,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언제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는 신성한 계약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Boys Town의 업무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Boys Town의 업무는 부모와 가족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Boys Town 거주시설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기법들을 부모들에게 전수하여 부모들이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육아 자료, 부모교육 및 집중적인 욕구가 있는 가족을 위한 방문형 가족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로 부모의 돌봄 부담과 부모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가족 자원, 가족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행동 및 정서 조절이 개선되었고, 원가족 유지가 증가했고, 물질사용이 감소되었습니다.

## Slide 12:

**“Take an active part in the activities of your child as a spectator. Your child will like it. Work together with your child. Play with your child after school.”**

### **Time and Attention**

“Take a nation of people that love to play, and I’ll show you a nation that can be made happy. You can preach greater sermons on the ball field than in church.”

BOYS TOWN.



“자녀의 활동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자녀가 좋아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일하십시오. 방과 후 자녀와 함께 놀아주십시오.”

Boys Town Model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는 성인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긍정적인 시간과 관심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추적 관찰하고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웰빙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서보다 운동 구장에서 더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 Slide 13:

### Take Care of those Closest to the Children

“May God give our parents and teachers the inspiration and determination to fulfill their sacred obligation to our children that they may receive the training which develops strong, wholesome, Christian characters. On this depends the destiny of our Nation and the World...” Father Flanagan.



“하느님, 우리 자녀들이 강직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품으로 발전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들이 자녀들에 대해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영감과 결의를 내려주소서. 여기에 우리나라와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 Flanagan 신부님의 기도


마지막으로, Boys Town Model의 가장 기본적인 지도 원리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입니다.

우리는 아동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동과 가까이 있는 성인을 지원하고 돌보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비스의 초점은 부모, 가족 구성원, 교사, 프로그램 직원, 코치 등에게 훈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사랑, 연민, 멘토링 및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Flanagan 신부님의 사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나는 단번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도 없고, 모두를 도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연민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을 돕는 사명을 공유하는 다른 성인들을 지원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한꺼번에 어디에나 존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lanagan 신부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카리타스 정신”의 힘이며, 오늘도 계속해서 Boys Town의 사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꽃동네대학교의 표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lide 14:**



### Closing Prayer

**"God, the creator of the human race, mercifully look down upon those You have appointed as guardians of the families and children... From the abundance of our hearts we give You thanks for the great privilege and trust You have bestowed on us... Aid us ever in fulfilling ou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wards our children and to each other."**



끝으로, 부모의 기도 일부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가족과 자녀들의 수호자로 임명하신 자들을 자비롭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과 신뢰에 대해 마음속 깊이 우러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Slide 15:**







For more information about  
Boys Town services or research  
please contact:

Patrick Tyler, PhD, LIMHP, LPC  
[patrick.tyler@boystown.org](mailto:patrick.tyler@boystown.org)  
Phone: 1-531-355-1222

**Saving Children, Healing Families®**

**Slide 16:**





다시 한번, 오늘 Boys Town의 자선활동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데에 겸손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카리타스)”을 가르치는 데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 꽃동네대학교의 사명 안에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Keynote Speech 기조연설 /

통역 및 토론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카리타스 정신으로 함께 하는 보이스타운의  
성공 사례”



통역 및 토론: 김미숙 연구교수 (꽃동네대학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Working with Caritas Spirit and the Successful Case of Boys Town

토론: 김미숙(연구교수, 꽃동네대학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면대면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학술대회는 미국의 발표자와 한국의 청중들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훌륭한 기조연설을 해주신 Boys Town Child and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의 Patrick Tyler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Boys Town과 꽃동네가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와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기조연설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Boys Town과 꽃동네는 종교적 배경, 사명, 그리고 대상 서비스 분야 등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Boys Town은 가톨릭 사제인 Flanagan 신부께서 노숙인을 위한 사목을 시작했다가, 노숙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황하는 소년들을 위한 거주 시설을 만든 데서 유래합니다.

오늘날 Boys Town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aving Children, Healing Families’라는 슬로건처럼, Boys Town은 **아동과 가족이 희망과 치유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Boys Town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치들로는 **종교생활(기도하는 법)**, 봉사, 인성 개발, 시민권이 강조됩니다. Flanagan 신부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카리타스 정신이 **오늘도 어린이와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리타스의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꽃동네대학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꽃동네는 가톨릭 사제인 오웅진 신부께서 음성 꽃동네에서 노숙인을 위한 사목을 시작한 데서 유래합니다. 오 신부님의 사목이 청주교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꽃동네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오늘날 한국 유일의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꽃동네는 대학 설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Boys Town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동네는 Boys Town으로부터 100년간 지속된 성공 사례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Boys Town은 젊은 꽃동네로부터 신선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국제학술대회는 상호협력과 발전의 기회로 선포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기관이 모두 노숙인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인 노숙인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 실천인 Caritas 정신에서 섬김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 모두가 청소년 교육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아동 청소년에게 있고, 그들의 비전과 사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비전과 사명을 제시해주는 카리타스 정신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Boys Town과 꽃동네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연구소를 겸비하고서 이 둘 간의 연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Boys Town은 실천 현장과 연구소가 상호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실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꽃동네는 오랫동안 실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에 몸담아 왔고, 대학에서는 사회복지와 카리타스를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제 카리타스복지연구소에서 연구와 실천의 연계를 추구하는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꽃동네대학교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제 Patrick Tyler 박사께 기조연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사회복지 실천은 노숙인, 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실천 분야마다 강조점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모두가 휴먼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Tyler 박사께서는 25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해 왔고, 현재 임상가이자 연구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Boys Town에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Dr. Tyler 대답: Boys Town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taking care of those closest to the children)”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린이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서비스에서는 임상가와 아동이 만나 개별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일주일에 한 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원, 부모, 교사, 코치 등을 훈련하고 상담하는 임상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 갈등이 있는 경우 임상가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상가는 부모에게 학교에서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이를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학교와 협력하여 교사로 하여금 학교에서 학생이 또래 갈등 해결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게 합니다. 자녀가 집과 학교에서 성인들로부터 비슷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직·간접 서비스 연계**는 **일반화와 연속성**을 향상시킵니다.

**질문 2.** Boys Town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다른 아동, 청소년 시설, 기관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Dr. Tyler.** Boys Town은 일반적인 이론적 접근방식과 서비스 실행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핵심 시스템의 강조를 통해 **예방에서 개입**에 이르는 폭넓은 사회,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입니다. 이러한 핵심 시스템에는 서비스가 원래의 목적대로 제공되고 구체적인 결과를 충족하는데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관리, 교육, 상담, 평가, 데이터 시스템 및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린이와 가족이 받는 서비스 시스템 내 **협력과 서비스 연속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보편적 예방 서비스**로 제공되는 Well-Managed School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또한 자신과 가족의 중요한 욕구를 도움받기 위해 In-Home Family Services와 같은 **집중적인 가족 기반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받는 개입 서비스는 그의 학교 교사들이 사용하는 접근방식과 일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의 복리를 위한 보호 요소를 촉진하도록 아동 및 가족의 주변 환경을 돕는 서비스 시스템을 조성합니다.

**1과 2 정리.** 여기에서는 사례관리의 주요 목적인 **서비스 통합성과 보호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Boys Town은 사례관리의 직접 서비스(상담, 교육)와 간접 서비스(서비스 연계, 조정)를 함께 제공하고, 보편적 예방 서비스와 개별 맞춤형 개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학생—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인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일관된 방식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협력하여 보호의 연속성을 추구합니다.

**질문 3.** Boys Town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업무를 담당하시고요. Boys Town은 실천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실천 현장과 어떤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요?

**Dr. Tyler 대답:** Boys Town 번역연구센터는 ‘**실천에서 연구로**’, 그리고 ‘**연구에서 다시 실천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연구는 연구자의 연구질문에서 시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는 실천에 도입되기도 하고 도입되지 않기도 합니다.

Boys Town에서는 실무자, 어린이, 가족들로부터 연구 아이디어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연구자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와 해결책을 연구 조사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On the Way Home®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주거 프로그램을 퇴소하는 어린이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모님과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통상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는데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 대학에서 영감을 얻어 연방 기금 지원을 받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설계 및 평가하였고, 다른 기관들이 우리 기관의 상담, 평가 및 데이터 지원을 갖춘 증거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연구소는 다른 기관들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파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정리.** Boys Town은 100년 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숙인과 거리 청소년을 돕는 자선활동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카리타스 정신이 실무의 기본 지침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어린이와 가족이 희망과 치유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교육, 의료 분야에서 예방과 개입, 실천과 연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끝]



## Presentation 주제발표 2

“St. Joseph Clinic, Working with the Poor”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 요셉의원”



Dr. Shin, Wan Shik  
(Director of St. Joseph Clinic)  
신완식 의무원장 (요셉의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요셉의원

요셉의원 의무원장 신완식 2020.10. 29.

## I. 노숙인 및 돌봄 시설



## 노숙인의 정의

### 우리 나라 노숙인 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거리 노숙인
2.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시설 노숙인
3.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만화방, 사우나, PC방, 쪽방 등

## 서울시 노숙인 현황

2018년 말 현재 3,478명 :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  
거리 노숙인 ; ~20%    여성 ; ~20%



자료출처 : 2018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 영등포지역 노숙인 현황

2020년 5월 현재,  
 서울시 전체 노숙인 : 3,853명 영등포구 : 376명 (9.8%)  
 " 거리 노숙인 : 743명 영등포구 : 89명 (11.9%)

✓ 거리노숙인은 대부분 영등포역 및 쪽방촌 일대에 밀집

계	영등포역 주변	영등포 사거리주변	여의도/한강 공원	기타지역
89 (100.0%)	42 (47.2%)	8 (8.9%)	34 (38.2%)	5 (5.7%)

자료출처 : 2020년 5월 서울시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

##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 종합지원센터 (3) :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 보현
- 일시보호시설 (4) : 만나샘, 웅달샘, 햇살보금자리, 디딤센터
- 자활/재활시설 (28) ● 요양시설 (7) ● 쪽방상담소 (5)

### ◆ 의료지원시설

무료진료소 (2) : 서울역(일반내과/치과), 영등포보현(일반내과/정신과/한방과)

국공립병원 (8) -안전망 병원

중앙의료원, 시립동부병원, 시립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시립서북병원(결핵전문),  
 시립은평병원(알코올,정신건강전문)

민간무료병원 (3) : 요셉의원, 성가복지병원, 다일천사병원

자료출처 : 서울시 복지포털사이트



## 영등포지역 돌봄(지원)시설

- 영등포지역 : 종합지원센터(1), 일시보호시설(2), 자활시설(1)
- 쪽방촌 인근 :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광야교회 등

영등포 쪽방촌 돌봄(지원)시설 현황



자료출처 : 한국도시연구소



## II. 요셉의원





## 요셉의원

가난하고 병들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



## 요셉의원 이념



“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 ”

## 병원설립자 · 초대원장



### 선우경식 (1945년~2008년)

1970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졸업

1973년 해군 군의관 복무

1975년 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Brooklyn N.Y. U.S.A. (내과전공)

1978년 Jewish Medical Hospital N.Y.C. 근무

1986년 방지거병원 진료부장

1987년~2008년 요셉의원 원장

2008년 4월 선종

## 선우경식 ‘카리스마’



“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 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다.  
그런 귀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하느님이  
선물로 보내주시는 환자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

- 잡지 “O” 인터뷰 -

✓ 독실한 가톨릭신자로 평생 독신생활

## 요셉의원 주요 연혁(1)

### 사랑의 집(골롬반 수도회 설립)



- ✓ 요셉의원 모태
- ✓ 82년~87년 신림동 영세민 주말 진료

## 요셉의원 주요 연혁(2)

### 신림동



### 영등포



- ✓ 1987. 8. 신림동에 개원(지역 재개발)
- ✓ 1997. 5. 영등포 현위치로 이전



## 요셉의원 주요 연혁(3)

요셉의원 개원 30주년 기념미사

2017. 9.23.



## 요셉의원 주변환경

병원 주변  
쪽방촌



- ✓ 현재 요셉의원 인근 환자 주요 거주지
- ✓ 쪽방촌 : 약 6백 여명 거주 추정

## 병원 주요 업무

**무료 진료**



### 재활 프로그램

(단주모임<AA>, 음악치료,  
영화포럼, 도서관, 교리반,  
휴게실, 법률/알코올 상담 등)

### 나눔

(음식<정기>, 의류, 이발봉사,  
목욕봉사 등)

### 자활센터

(목동의 집: 단기거주 중간집)

## 의료 업무 (1)

### 진료대상

- ✓ 노숙자 및 행려자
- ✓ 기타 의료사각지대의 가난한 환자

### 진료범위

- ✓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가능
- ✓ 요셉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인근 병원(보라매, 시립 등)에 전원

### 진료비

- ✓ 환자 진료 및 치료비 전액 무료
- ✓ 병원운영비는 민간후원금으로 운영 (정부 및 지자체 도움 없음)



## 의료 업무 (2)

### 진료과목

- ✓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 20 여개 과목

### 검사

- ✓ 원내검사 : 임상병리, X선, 초음파검사 등
- ✓ 외부의뢰검사 : CT, MRI 및 특수검사

### 진료시간

- ✓ 낮 진료: 오후 1시~5시
- ✓ 저녁 진료: 오후 7시~9시  
(\*의료진 개인/종합병원 진료 종료 후 봉사)

## 의료 업무 (3)

### 봉사자

- ✓ 의료 봉사자 : ~ 100 여명/월
- ✓ 일반 봉사자 : ~ 500 여명/월

### 환자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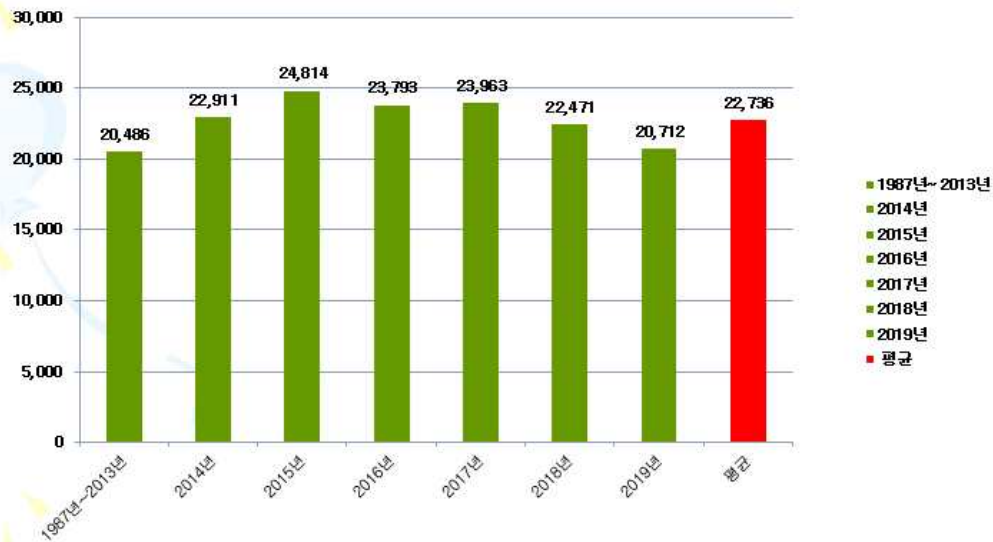
- ✓ 평균 진료환자 : ~ 100 여명/일
- ✓ 누적 진료 환자 수 : ~ 70 만명  
(\*2020 년 8월말 현재)

### 후원자

- ✓ 후원자 : ~ 3천 여명/월 (\*2020 7월말 기준)

## 의료 업무 : 환자 진료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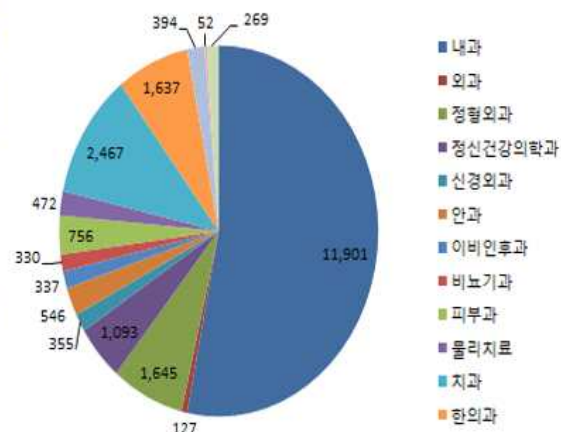
- ✓ 개원 이후 누적 환자 진료수 : ~70 여만명 ('20.8월말 기준)
- ✓ 연평균 환자 진료수 : ~ 22,000 여명



## 의료 업무 : 최근 3년간 진료 현황 (2)

내과(53.2%) > 치과(11.0%)  
> 정형외과(7.3%) > 정신의학과(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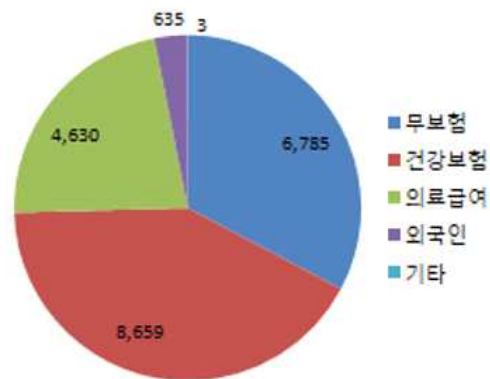
진료과목	최근3년 평균 (2017-2019)	구성비
내과	11,901	53.2%
외과	127	0.6%
정형외과	1,645	7.3%
정신건강의학과	1,093	4.9%
신경외과	355	1.6%
안과	546	2.4%
이비인후과	337	1.5%
비뇨기과	330	1.5%
피부과	756	3.4%
물리치료	472	2.1%
치과	2,467	11.0%
한외과	1,637	7.3%
통증클리닉	394	1.8%
영상의학	52	0.2%
카이로프랙틱	269	1.2%
계	22,382	100.0%



## 의료 업무 : 의료보장 혜택 별 현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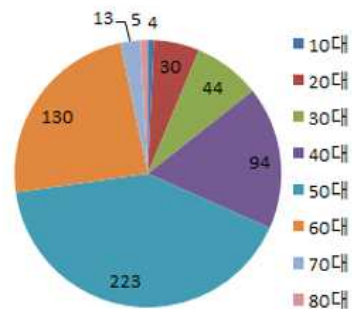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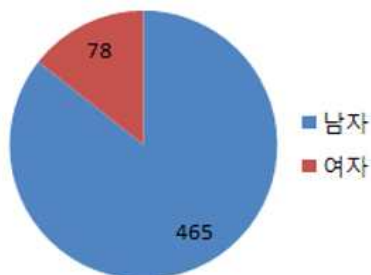
건강보험연체자(41.8%) > 무보험(32.8%) > 의료급여(22.4%)

의료보장혜택별	2019년 환자수	구성비
무보험	6,785	32.8%
건강보험	8,659	41.8%
의료급여	4,630	22.4%
외국인	635	3.1%
기타	3	0.0%
계	20,712	100.0%
(노숙자)	165	0.8%



## 의료 업무 : 2019년도 신규환자 분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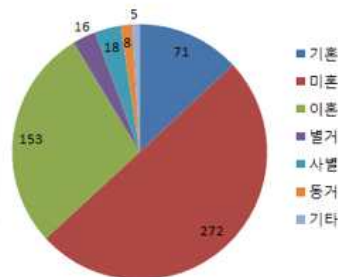
✓ 2019년도 신규상담환자 : 543명  
남자 ; 85.6%, 50대 ; 41.1%, 60대 ; 23.9%



성별	계	남자	여자	나이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543	465	78		543	4	30	44	94	223	130	13	5
	100.0%	85.6%	14.4%		100.0%	0.7%	5.5%	8.1%	17.3%	41.1%	23.9%	2.4%	0.9%

## 의료 업무 : 2019년도 신규환자 분석 (2)

- ✓ 결혼 상태 : 미혼 50.1%, 이혼 28.2
- ✓ 주거 형태 : 월세 35%, 고시원 21%, 노숙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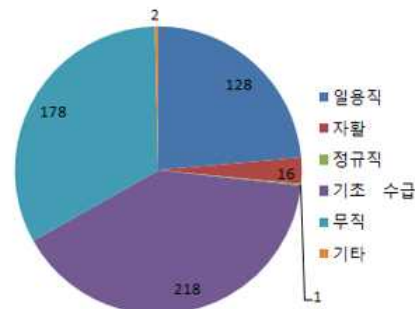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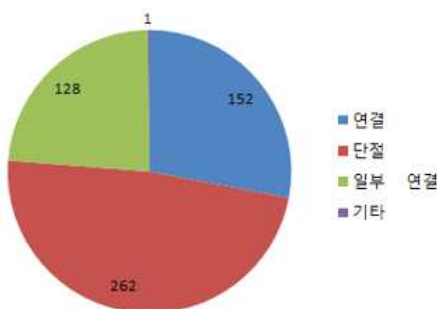
결혼상태	년도	기혼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동거	기타
	543	71	272	153	16	18	8	5
	100.0%	13.1%	50.1%	28.2%	2.9%	3.3%	1.5%	0.9%

거주형태	년도	전세	월세	임대 (SH/LH)	시설	노숙	고시원	쪽방	기타
	543	12	192	26	38	41	115	46	73
	100.0%	2.2%	35.4%	4.8%	7.0%	7.6%	21.2%	8.5%	13.4%

## 의료 업무 : 2019년도 신규환자 분석 (3)

- ✓ 가족관계 : 단절 48.3%, 연결 및 일부 연결 51.6%
- ✓ 직업 : 기초수급 40.1%, 무직 32.8%, 일용직 23.6%



가족관계	년도	연결	단절	일부 연결	기타
	543	152	262	128	1
	100.0%	28.0%	48.3%	23.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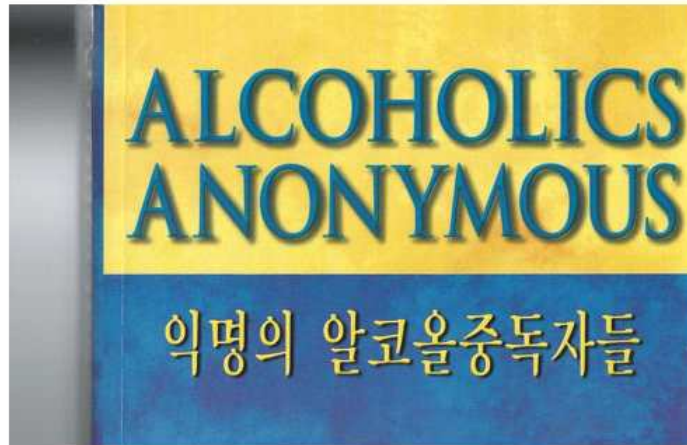
  

직업	년도	일용직	자활	정규직	기초수급	무직	기타
	543	128	16	1	218	178	2
	100.0%	23.6%	2.9%	0.2%	40.1%	32.8%	0.4%



## 환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1)

A.A.



✓ 알코올 의존증 환자 단주모임 : 매주 2회

## 환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2)

상담



✓ 알코올 의존증 환자 상담 및 법률 상담



### 환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3)

#### 음악치료



✓ 매주 목요일 , 20~30명 참여

### 환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4)


#### 영화포럼



✓ 매월 1회 , 20~30명 참여

## 환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5)

도서관

 작은도서관



일 평균 이용자 : 15~20명  
보유 도서량 : ~ 4,500 여권

## 환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6)

예비자  
교리



연 2~5명 세례 (총 22명 세례)

## 음식 나눔

음식나눔



- ✓ 인근 토마스의 집 정기휴일인 매주 목요일 식사제공 (150-200 여명)

## 의류 나눔

옷, 신발  
나눔



현관에서 기증 받거나 구입 의류 나눔



## 목욕 나눔

목욕시설



✓ 1층 목욕시설, 매주 월, 수, 금 개방

## 이발 나눔

이발봉사



✓ 매주 화요일 이발 (30-40 여명)

## 선종 봉사

요나  
선종봉사회



✓ 무연고 환자 사망 : 장례지원

## 환자 자활센터 운영

목동의 집  
(중간집)



- ✓ 무주택자 통원치료 & 자활준비 단기 입소 (1년 이내)
- ✓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 전액 무료 (의식주 제공)



## 해외 의료지원 (1)

### 필리핀 요셉의원



최영식 마티아 신부(초대원장)    장경근 프란치스코 신부(현 원장)

- ✓ 2013년 필리핀 마닐라 말라본 시에 <필리핀 요셉의원> 개원
- ✓ 진료 : 월 ~600 명, 급식: 월 ~3,500명, 장학금 : 년 ~60명(초,중,고생)

## 해외 의료지원 (2)

### 기타 해외지원

- ✓ 미얀마 (Kyaing Tong )
- ✓ 잠비아 (Solwezi)
- ✓ 캄보디아 (Battambang)
- ✓ 카자흐스탄 (TodyKorgan)
- ✓ 브라질 (Vila Prudente)



- ✓ 5개국 빈민지역에 간이진료소 운영비 및 의약품 지원  
\*지역별 약 \$10,000/년

### Ⅲ. Post 코로나 & 대응 과제



### 노숙인 &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이해(1)

왜 저러고 살까?  
이해가 가질  
않아요...

무료급식을  
기다릴게 아니라  
일할 생각을  
해야지.....



천성이  
게을러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노숙인 &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이해(2)

- ✓ 부모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갑옷을 두른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
- ✓ 여러 가지 실패로 집과 돈, 건강을 잃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운 외롭고 가난한 누군가의 가족
- ✓ 노숙자를 사회부적응자나 갱생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바라보는 성숙된 시각이 필요

## 노숙인 &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이해(3)

- ✓ 장기 노숙생활로 심리적 위축
- ✓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가 많음  
( 당뇨병, 고혈압, 골관절증 등 )
- ✓ 피폐화되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
- ✓ 다수는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편견과 차별로 사회적으로 배제

## With Corona-19 시대

- ✓ 비대면(Untact)시대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의 진료는  
비대면이 어렵고 기존 복지 체계의 약화 우려
- ✓ 요셉의원의 미래 방향
  - 1) 새로운 프로그램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인적 치료  
인간 공동체의 양극화로 pandemic-불평등의 악순환  
마음의 우울 Corona blue 시대
  - 2) 새로운 운영시스템 : 후원자 및 자원 봉사자  
최근 환자 ↓, 자원 봉사자(의료인 및 일반) ↓
  - 3) 연대성 강화 : 현행 서울시 안전망병원 등 공공의료시스템
  - 4) 영등포 일대의 재개발

##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 -Corona 시대의 갈 길-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꽃은 자기를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과 자세



##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과 자세

“ 환자가 변하지 않는 것은  
환자가 나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몹는 우리가 부족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뒷바라지만 할 뿐입니다. ”

[선우경식 원장 선종 3개월 전 '음성 꽃동네'강연]



#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주제발표 2 /

토론문

“St. Joseph Clinic, Working with the Poor”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 요셉의원”



토론자: 강성례 교수 (꽃동네대학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고귀한 카리타스 정신을 담은 빈민에 대한 가톨릭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요셉의원

토론자 : 강성례(교수,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요셉의원 신완식 원장님의 발표를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학 전공자로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 요셉의원’에 대한 발표의 토론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 경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은밀하게 작동되는 사회 메커니즘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근현대 400여 년 동안 지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계몽주의자 베이컨의 “아는 것은 힘이다”에서 ‘아는 것’과 ‘힘’이 동일할 수 있다는 가정에 출발되었습니다. 베이컨의 기획은 과학을 체계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푸코(Michel Foucault)에 의하면 근대적 권력의 특징은 지식 및 과학과 결합하여 권력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르네상스 이전과 달리 권력의 대상자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셸푸코와 같은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근대성이 이미 그 출발부터 특정한 존재들에 대한 지배의 프로젝트였으며, 그 지배의 행사를 위해 사회 내 특정한 존재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혹은 ‘타자화’의 메커니즘을 작동·발전시켜왔다는 인식의 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타자화된 인간 집단들의 범주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여성, 부랑자, 실업자,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등으로 그 목록을 추가해나갑니다. 이들 인간 집단은 비이성, 불법성, 미성숙, 연약함, 게으름 등의 속성들로 낙인이 찍히고 경계 밖의 삶으로 점점 밀려 나가게 됩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미국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어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는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회보장분야의 확충이 점점 퇴색되어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빈곤과 결핍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메커니즘에는 타자화된 인간집단에 속한 존재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이해부족, 그들이 처한 곤경과 소외에 대한 방관, 공감 결여 등 우리 개인들의 연대성 결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생 독신으로 가난한 노숙인을 위해 헌신하시며, ‘쪽방촌의 슈바이처’로 존경받으셨던 요셉의원 설립자이신 고 선우경식 초대원장님께서 선종 3개월 전 음성꽃동네에서 하셨던 강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아무런 인간적 판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하느님 사랑으로 이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돕고 돌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되새기고자 하는 카리타스의 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라는 요셉의원의 설립이념 또한 카리타스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요셉의원이 수행하고 있는 무료진료, 환자재활지원프로그램, 자활센터운영, 선종봉사에 이르기까지의 나눔봉사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들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필리핀을 비롯한 6개국 빈민지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공공의료의 다하지 못하는 고귀한 카리타스 정신을 담은 빈민에 대한 가톨릭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을 요셉의원이 이 사회에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원식 원장님을 비롯한 요셉의원 관계자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드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질문 1 :** 발표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코로나 19 이후, 요셉의원의 운영에 발생한 구체적인 변화들은 무엇입니까?

■ **질문 2 :** 장기화 혹은 반복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을 지키면서도 그 어느 서비스보다 물리적 접촉과 상호작용적 특성이 강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Presentation 주제발표 3

“Practice of Caritas at the Social Welfare Center”

“사회복지기관에서 카리타스 실천”



Bro. Park, Young-Man Phillip

(Director of Gapyeong Kkotongnae Mental Sanatorium)

박영만 필립보 수사 (가평 꽃동네 정신요양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카리타스 실천

## (Practice of Caritas at the Social Welfare Center)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박영만 필립보 수사(Bro Park Young Man(Phillip))  
from Gapyeong Kkotdongnae Mentalsanatorium

### 1.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의 정신

가평꽃동네 환희의 집의 정신은 가톨릭의 보편적 인류에 대한 사랑과, 마태오 25장 40절의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허용하심으로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엄함을 향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병이 젊은 시기에 발생하여 양성 및 음성증상, 사고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대인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고,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어 외톨이로 살아간다. 또한 장기적인 입원은 치료자들이 정신장애인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로 인식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가 상실되어, 정신장애인은 우울하고 삭막한 정서로 고통을 겪게 된다.

가평꽃동네환희의집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 서비스, 심리상담, 사례관리, 재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더불어 영성 서비스를 직원들이 함께 동반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장애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며,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경험한 정신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회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스스로 자신보다 어려운 정신장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은 ‘너희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마태오 25장 40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인 재활이며, 또한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카리타스 실천의 완성이다.

## 2. 카리타스 실천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 (1)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숙고할 것들

- 예수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강생하시어, 간음하다 잡힌 여인, 다가가기 힘든 문둥병환자, 마귀 들린 사람, 백인대장, 세관장, 장애인(소경, 와상환자 등)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과 눈을 맞추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신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체 및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죄 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

- ① 정신장애인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다.
- ② 정신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인격체다.
- ③ 생활인의 정신적 증상과 정서(감정)를 구분하라
- ④ 장애인의 어떤 무의미해 보이는 말과 행동도 존중하라.  
(예: 휴지를 가지고 노는 지적장애인, 쓰레기를 모으는 정신장애인)
- ⑤ 정신장애인의 증상과 삶은 동일하지 않다. 아토피 증상이 곧 그 사람의 삶이 아닌 것과 같다.
- ⑥ 말과 행동으로 정신장애인을 불편하게 했을 때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인격적 관계란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다.
- ⑦ 정신장애인이 보여주는 다양한 문제는 대부분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다.(성체혜손)
- ⑧ 문제(도벽, 다툼, 폭언, 폭력, 쓰레기 모으기 등)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생활인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지마라. 그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다.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요한 8장15절)

### (2)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오 25장 40절)

- ① 직업과 작업치료를 오래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생활인
- ② 환경 재발로 자포자기한 폭력적인 생활인
- ③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예민하고, 작은 불만도 근무자에게 크게 표출하는

생활인 (틀니사건)

- ④ 우울증으로 계속 된 자살시도 때문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생활인
- ⑤ 생활관에서 다수의 생활인과 다툼이 많아 미움을 사는 여생활인(조현병)
- ⑥ 양치교육을 하는 간호사를 밟고 때린 남자 정신장애인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오 5장 44절)

### (3) 사랑으로 변화 된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오 23장 11절)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오 20장 28절)

- ① 망상과 환청, 환시가 심한 70대 할아버지(조현병)의 주방출근
- ② 여자생활인(조현병)의 식당청소 (성모님께 감사해서)
- ③ 70대 할머니(조현병)의 과부의 헌금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마르코 12장 44절)
- ④ 생활인(알콜중독)의 기쁘고 행복한 봉사활동
- ⑤ 남자생활인(지적장애)의 빨래 당번
- ⑦ 남자생활인(알콜중독)의 복도청소
- ⑧ 다섯 번 자살 시도한 생활인(알콜중독, 조현병)의 시설 외부환경 관리
- ⑨ 영어학원 강사였던 여생활인(조현병)의 카페 운영기 (생활인의 쉼터가 되어주고 싶다)

## 3.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한 실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심과 믿음을 가지고 정년까지 함께 하자고 외친다.’

#### (1) 함께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 (장기근속은 전문인력 양성)

- ① 믿고 신뢰하는 관계 (불신은 생활인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②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질병, 인생의 고비 등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확실한 휴식 제공. 이러한 휴식 보장은 다른 구성원에게 희망을 안겨준다.
- ③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퇴사자를 직원으로 재 채용함.
- ④ 가장 까다롭고 불만이 많은 직원은 운영자의 스승
- ⑤ 상처를 받아 퇴사를 결심한 직원에게 용서를 청함.
- ⑥ 징계는 정년까지 함께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
- ⑦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상 인사이동은 불가피 한 상황에서만 진행.
- ⑧ 평화를 위해 손해보고, 저주는 것을 선택하는 삶

#### (2) 직원들의 질적, 영적 성장

- ① 직원의 실수할 수 있는 권리
- ②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직원들이 참여
- ③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한 편의제공 (임상심리, 정신보건전문요원, 대학원 등)
- ④ 직원들이 생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례 관리, 상담 진행 시 지속적인 슈퍼비전 제공.
- ⑤ 슈퍼비전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몇 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 및 실시
- ⑥ 직원에 대한 슈퍼비전은 그 개인의 수준과 실력에 부합되게 제공.

### 4. 치료와 구원의 공동체

#### (1) 의료적 치료

꽃동네는 생활인이 원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진료나 수술적 치료를 끝까지 한다.(인곡자애병원,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청주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주 5회 진료). 또한 생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면 돌아가실 때 까지 모시고 산다. 창설자 오웅진신부님은 가족분



(생활인)이 세속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그 영혼이 구원되었다고 확신될 때까지 치료하라고 하셨다.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나갔다가, 원하시면 다시 들어와서 생활하실 수 있음.

## (2) 죽음에 대한 서비스

### ① 현재의 장례문화

현재 장례문화는 화장장과 납골당으로 모시는 것이 보통이나, 시설 생활인이 돌아가시면 보호자들이(형제, 자매들) 화장해서 화장터에 뿌리거나, 자연에 뿌리는 경우가 많다. 이 세상에도 잊힌 채 살아 온 이름이었는데, 돌아가셔서도 이 영혼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 ② 꽃동네 장례문화

꽃동네는 생활인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천주교 장례예식에 따라 진행하며, 창설자 오웅진신부님은 꽃동네가족(생활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꽃동네 묘지와 성당을 마련하셨다. 돌아가신 시신을 수도자가 운구하여 화장하고, 봉안을 묘지에 마련 된 납골당에 모신다.

묘지 가운데 위치한 성당에서 오후 4시에 돌아가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부님과 수도자, 재속회원들이 365일 매일미사를 봉헌한다.

### ③ 행려자 시신 장례

재단이사장을 겸한 창설자 오웅진신부님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행려자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시신을 군과 도청에 요청하여 꽃동네 생활인과 똑같이 장례를 해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있다.

- 꽃동네는 이 세상에서도 생활인의 치유, 행복, 구원을 위하여 일하지만, 돌아가신 영혼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동행합니다. -

Presentation 주제발표 3 /

토론문

“Practice of Caritas at the Social Welfare Center”

“사회복지기관에서 카리타스 실천”



토론자: 도건창 교수 (꽃동네대학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토론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카리타스 실천  
- 그리스도교 인간학 관점에서 본 카리타스 실천

1. 들어가는 말

이 발표문을 읽으며 2019년 초 직원교육을 위해 가평꽃동네에서 닷새간 머무르며 만난 동료 직원들의 열정, 수도자들의 확신에 찬 모습과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소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의 실천을 카리타스 정신 관점에서 돌아봄으로써 일상적 실천에 배어 있는 카리타스 정신을 학술대회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발표자 박영만 수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의 실천과 그 의미를 1. 기관의 정신, 2. 인격적 관계 관점에서 본 시설 거주민을 위한, 그들과 함께 하는 카리타스 실천, 3.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한 실천, 4. 치료와 구원의 공동체로서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의 순서로 정리해주셨습니다.

2. 인간의 존엄성과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 관한 그리스도교 인간학적 이해

첫 장인 기관의 정신에서 발표자께서는 인간은 신을 닮았기에 존엄한 존재라고 보셨습니다. 그 존엄성을 제대로 정신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처지, 곤타인과 소통의 어려움, 소외당함, 낙인 등의 현상과 그 결과를 판단했습니다. 가평꽃동네환희의집의 과업 역시 같은 관점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과업은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재인식하고, 현재 처지와 사회의 배제와 차별로 인한 상처를 받아들이고 타인과 사회를 용서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서비스를 통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성경의 근거로 마태오 복음 25장 40절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가톨릭교회의 인간이해를 짧고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신은 사랑 자체로서 그 사랑으로 인간과 세계를 창조했고 구원하려 하느 분이십니다. 그런 신이 창조한 인간은 사랑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사랑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창조주로부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하느님을 찬양한다.” (제2차바티칸공의회, 『기쁨과 희망』 12항)

하느님과 맺는 이 관계가 인간 평등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성적 영혼을 갖추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동일한 신적 소명과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근본적 평등은 더욱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차바티칸공의회, 『기쁨과 희망』 29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신의 모상(Imago Dei)으로 존엄한 인간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더욱이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22) 하시며 (중략)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하느님 자녀들의 결합과 신적 위격의 결합이 지닌 어떤 유사성을 가리켜 주셨다. 이 유사성은 (중략)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지 않으면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제2차바티칸공의회, 『기쁨과 희망』 24항)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 관계의 체험은 손상되거나 방해 받고 있는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평꽃동네환희의집이 가진 과업이해는 카리타스를 “인간에게 언제나 필요한 사랑을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는 한 방법”(『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나)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인격적 관계를 중심으로 본 카리타스 실천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근거한 그리스도교 인간이해와 카리타스 실천의 기본자세를 짧게 서술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정신증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존엄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격과 정신증으로 인한 증세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그분 존엄성과 유일무이한 개별성은 개인별 정신적 손상을 적절하게 보완해주지 못하는 사회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가평꽃동네환희의집 실천이 특별히 지향해야 할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독 meine geringste Brüder)”이 어떤 분들인지 기술했습니다

다.<sup>1)</sup> 그분들은 날카롭게 반응하고, 비협조적이며, 때로는 공격적, 폭력적이고,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오직 정신증을 앓는 분들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이름 붙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칭한 첫째 이유는 정신증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한 대접을 받고 있고, 예수님께서 당신과 그들을 동일시했기 때문(마태 25,40)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민(마태 2,13-15), 노동자(마태 13,55; 마르 6,3), 방랑자(마태 8,20; 루카 9,58), 문화적 이단아(마태 12,8. 12,12; 루카 13,16; 마태 21,12; 마태 11, 19 등), 사형수(마르 14,64)로서 자주 비난 섞인 시선과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던 분이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그분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될 수 있는 분들이라 믿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예수님을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기쁨과 희망』 22항; 『인간의 구원자』 8항)하셨기에 “인간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분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느님의 모상다운 인간, 가장 인간다운 인간(참조 『기쁨과 희망』 41항)이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힘을 입어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말마디를 그렇게 알아들은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스스로 고통 받고 있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진 것을 내놓거나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여러 사례를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은 2020년 10월 3일 반포한 새 사회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87항에서 인간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행위 안에서만 자신을 계발하고 실현하며 충만함을 찾을 수 있기에 아무도 구체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인생의 가치를 경험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랑을 위해 창조된 이들(Wir sind für die Liebe geschaffen)”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에 등장하는 분들 역시 구체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해가고

1) 현대 성서주석학의 연구에 따르면, 마태오복음 25장의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은 단순히 사회 속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위해 그런 처지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유랑하는 ‘예수님 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마태오 복음 10,42과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4, 9-13에서 하느님 나라 선포를 위해 파견된 사도들의 처지를 묘사하는 부분과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전통은 오래 전부터 이 단어를 사회 속에서 특별히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예를 들면 교황 레오 1세의 사순시기 강론을 들 수 있다.(참조: 레오대종(1996). 『사순시기 강론집』. 이형우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73.) 토론자는 이 전통에 따라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그리스도교 신학적 인간학과 연관시켜 이해했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다운 세상을 향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3.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한 실천

제3장에서 발표자께서는 공동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인 동료들과의 관계에 관해 설명합니다. 첫째 절에서는 그들을 대하는 기본태도를 다루셨고, 둘째 절에서는 그들의 질적, 영적 성장을 위한 시책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당사자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하는 인사정책과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관을 아우르는 직원개발 방향이 카리타스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로서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제2차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인류의 빛』 1항)라고 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랑의 새 계명을 그 법으로 지니고”(제2차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인류의 빛』 9항)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사람들에게 선명하고 믿을만한 표징이 되려면, 먼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믿을만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가톨릭교회의 카리타스 조직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카리타스 시설·기관은 사랑의 공동체다운 조직문화와 인사노무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가톨릭교회 카리타스 조직 구성원은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 뿐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인격적 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간애” 역시 갖추어야 합니다.(베네딕토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그 때문에 2014년에 선포된 『국제카리타스 회원기구를 위한 윤리강령』은 카리타스다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14가지 원칙 가운데에 ‘직원 보호’와 ‘배움과 직원개발’을 포함시켰습니다.

직원보호 원칙은 존엄한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지켜야 할 뿐 아니라, 함께 카리타스 정신에 따른 ‘봉사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리타스 시설·기관의 교회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운영법인과 시설 책임자들이 해내야 할 과업입니다. “공정하고 품위 있고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모범사례를 찾아 계속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력의 지속 여부가 윤리적으로 카리

타스다운 조직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사회복지 운영법인과 시설·기관장에게 직원보호 원칙이란 ① 직무상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의 시행, ② 노동과 여가, 일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조건 마련, ③ 타인 존엄성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노동 관련 권리(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의 능동적 보장, ④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른 공정한 업무평가에 근거한 인사 실시, ⑤ 근로자와 경영진 사이의 언어, 자세나 태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방식에 스며들어 있는 상호존중 문화의 장려, ⑥ 제도화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카리타스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는 ① 업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 규칙 준수, ②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 등 근로자 권리 활용에 관한 이행과 적극적 수용, ③ 자기 권리를 사용할 때 자신을 대신해 수고하는 동료들에 대한 감사, ④ 소속 조직의 직원보호정책 발전과 기여에 적극적 참여 등이 요청됩니다.

배움과 직원계발 원칙이 카리타스 조직에 요구하는 것은 ① 그리스도교적 인간이해와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카리타스 인재상의 확립, ② 그 인재상에 근거한 전인적이고 참여적인 교육과 휴식기회의 제도화, ③ 관찰과 판단, 지식과 기술의 나눔을 통한 조직내 지식관리와 양성을 위한 전략적 기획, ④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양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자기개발 및 양성계획의 수립, ⑤ 일과 삶을 전인적으로 돌아봄으로써 지금까지 받아 온 사랑과 자기 존엄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유식과 교육기회의 제공, ⑥ 자기 업무의 의미와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동료간 학습과 체계적인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도의 수립 등입니다. 카리타스 조직에서 직원계발은 자기 존엄성과 직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동의함으로써 직무 의미감을 내면화하고 직무 역량 강화로 직무 자신감을 향상시켜 행복한 직장생활을 돕는 것이라야 합니다. 배움과 직원계발 원칙은 개인의 자기계발을 넘어 “역동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카리타스 파트너십 원칙」카리타스 파트너십의 조직적 가치)를 지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이 원칙은 ①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통해 자기 존엄성과 소중함을 체험하여 카리타스다운 일터영성을 찾아나가기 위한 능동적 노력, ② 담당 업무에 관한 관찰 내지 성찰로 과업의 의미 파악, ③ 과업의 의미에 근거한 판단의 시도, ④ 동료간 나눔이나 슈퍼비전 기회를 활용해 과업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함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4. 치료와 구원의 공동체

끝으로 발표자께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최선의 치료와 임종 동반,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기도로 동반하는 문화에 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유럽의 많은 호스피스 병동, 요양원에는 그곳에서 함께 지내다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는 장소(방, 경당, 또는 작은 공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분들이 자주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치료와 임종후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음성과 가평꽃동네에 준종합병원 수준의 자체 의료시설과 공동묘원을 갖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이면에는 죽기까지,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까지 곤경에 처한 사람 곁에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꽃동네 정신과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은 다른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정, 조직, 자원을 통해 가평꽃동네환희의집 동료들께서 이루어 낸 카리타스다운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전체 과정에 배여 있는 카리타스 정신을 명료하게 요약 해주신 발표자 박영만 원장수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카리타스 정신에 바탕을 둔 이런 열정, 조직, 자원이 기존 꽃동네 시설·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당사자들이 살아왔고 살아갈 모든 지역에서 계속 생겨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가평꽃동네환희의집에 살고 있는 정신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존엄한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정책의 개선과 시민들의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사회복지조직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 돕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Presentation 주제발표 4

“The Practice of Caritas:  
Searching. Reaching out. Living in Community.”

“삶의 현장에서 카리타스 함께 살기:  
찾아나서다. 다가가다. 함께 살다.”



Jung, Bok Hee (Director of  
Caritas Wonju Samcheok-Si Dogye Bogeumjari “Nest”)  
정복희 원장 (원주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삶의 현장에서 카리타스 함께 살기

## The Practice of Caritas

발제자 : 정 복 희

원주카리타스 삼척시도계보금자리 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카리타스 소속 삼척시도계보금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 정복희입니다. 국제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초청해 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컨벤션 홀은 저에게 있어 아주 뜻 깊은 장소입니다. 2011년 10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카리타스학 석사학위 수여식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꽃동네 오웅진신부님, 광주교구 최창무대주교님, 한국카리타스 관계자, 카리타스아카데미 남영자소장님등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특별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신학대학장이신 바우만신부님께서 내한하셔서 직접 학위를 수여해 주셨던 곳이기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저는 원주카리타스에서 40년간 근무한 사회복지 실천가입니다. 실천가로서 강의록 만드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 < 나의 첫 번째 삶의 여정 속 어린시절 >

저의 어린시절 기억 한 꼭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났고 가톨릭신자이신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자랐습니다. 우리집엔 늘 아픈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왔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한 후 아버지는 자전거에 태워 약15KM 거리의 면소재지 보건소로 달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그분이 다나올 때까지 도움을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마음에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며 유년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갑니다. 삶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찾으십니까? 길을 찾았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 1. 찾아 나서다. Searching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무엇인가 찾아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원 하는 그 무엇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성모마리아  
마리아 반 칼렌 수녀 그림

### < 나의 두 번째 삶의 여정의 속 영적 동반자 >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p>어느날 사목방문을 오신 주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p> <p>지금 여기!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p> <p>이 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소명입니다.</p>
---	---

\* 천주교원주교구 초대교구장이신 고 지학순(다니엘)주교님께서 20대인 저에게 하신 말씀에 '예' 하고 대답한 후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발제자가 경험한 사회복지를 연대별로 정리 한 것 입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이전	20~30대 : 1980년~1992년 농촌지역 아동복지사업 (장미어린이집 유아교사) 제천시 도시빈민지역의 아동복지사업 (인애유아방/공부방) 원주시 빈민지역의료사회사업 (원주가톨릭병원 사회사업실) 원주시 지역복지사업 (원주지역복지부) 원주시
사회복지학 졸업이후  카리타스학 졸업	30~40대 : 1992년~2003년 여성복지전담 사회복지공무원 (농촌지역) 평창군 지역복지사업(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 40~50대 : 2004년~2012년 광산촌.어촌.도농지역 재가노인복지(작은꽃노인복지센터)삼척시 2013년~2015년 노인의료복지사업 (천사노인요양원) 원주시 50대~60대 : 2015년~2020년 현재 재가노인사업(도계재가노인복지사업 데이 케-어 센터) 장애인복지사업(삼척시도계보금자리 성인장애인거주시설)

## 사례1>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한 삶

원주교구에서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원주교구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아동,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도시빈민지역과 농어촌, 광산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부모나 사회의 보살핌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본당과 공소를 중심으로 독일 카리타스중앙회의 협력사업으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간 재정지원(인건비, 시설비, 운영비)을 받으며 단계별로 추진을 하게 된다.

1단계사업 : 원주교구내 본당과 공소를 중심으로 15개의 유아교육기관 설립
2단계사업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대상 다양한 교육사업
3단계사업 : 유아교육기관 전담실 설치 후 교사, 학부모 전문화교육 계획

이와 같이 단계별로 실시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취학 전 아동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5개의 유아교육기관들은 농촌, 광산촌, 도시빈민촌을 중심으로 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보호기관인 동시에 교구 사회복지부와 연계하여 지역의 가난한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교구에서는 유아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의 인적자원(성당과 공소의 교리교사 및 청년회원 중 유아교육 전공자 및 예정자 )과 물적 자원(성당 교리실 및 공소건물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때 참여한 교사들 모두는 유아교사이자 준 사회사업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며 교사연수회를 통하여 교사들이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83년 한국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 발족과 함께 전국망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 전문가양성교육기관(카리타스아카데미연구소 남영자소장)에서 국,내외 교육 뿐 아니라 상황중심교육 및 카리타스학 전문가과정이 개설된다.

	
교사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탄광촌, 농촌지역 성당,공소 내 유아원설립

< 원주교구관할구역 내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설립된 유아원 현황>

번호	지역명	원 명	설립년도	변 경 사 항	기 타
1	제천군 의림동성당	소화유아원	1980	소화어린이집설립	1983년 유치원인가
2	정선군 고한성당	성심유아원	1980	1990년 폐쇄	
3	제천군 백운공소	장미유아원	1980	1997년 건물신축	1992년 본당승격
4	원성군 부론공소	부론유아원	1980	1986년 폐쇄	원아부족
5	정선군 사북성당	성심유아원	1981	1991년 폐쇄	
6	삼척시 도계성당	백합유아원	1981	1990년 폐쇄	폐광인구이동 원아부족
7	횡성군 횡성성당	성모유아원	1981	1982년 유아원인가	1990년 유치원인가
8	횡성군 둔내공소	요셉유아원	1981	1993년 건물신축	1994년 본당승격
9	원성군 용소막성당	용암유아원	1981	1987년 폐쇄	인구 감소
10	평창군 평창성당	소화유아원	1982	유아원으로 설립	1993년 명칭변경
11	정선군 함백공소	성가유아원	1982	1990년 폐쇄	1986년 건물 신축
12	태백시 장성성당	천사유아원	1982	화강 유아원설립	1993년 유치원인가
13	단양군 장정공소	성요한유아원	1982	1988년 폐쇄	인구감소 원아 부족
14	원성군 문막성당	문막유아원	1984	1983년 건물신축	1990년 유치원인가
15	태백시 황지성당	대건유아원	1988	1988년 대건유아원	1993년 유치원인가

(1983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전 유아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설립하게 된 점)

교구사회복지부에서는 15개 유아교육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사회복지 활동 방향으로 다양한 대상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기로 결정 1983년 독일카리타스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1986년 원주, 제천, 태백지역에 각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사업관을 개설하게 된다. 또한 외국 원조(독일카리타스중앙회)가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 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출선수범 하여 후원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1984년 원주교구사회복지사업후원회로 정식 발족을 하게 되었다. 2020년 현재 국. 내외 약 1만5천 여명의 후원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 사례2 아동 일시 위탁가정보호 프로젝트 참여

아동복지와 지역복지를 경험하면서 본격적인 사회복지 일을 하기위해 사회복지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원주로 이동하여 입시준비를 하면서 원주지역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빈민지역의 아동복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추운겨울 어린 두 자녀(3.4살)를 데리고 포장마차를 하는 모자가정을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포장마차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낮 동안은 지역복지부 사무실에서 돌보고 퇴근길에 엄마의 일터인 포장마차로 데려다주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일이 몇 일 동안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최종논의 후 아이들을 기숙사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듣고 도움을 청하는 긴급가정이 늘어났고 함께 살아야하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 기숙사는 임시 위탁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 < 이용 조건 >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1회 이상 자녀를 만나야 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2년 이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써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었다. 부모들은 위와 같은 조건들을 지켜 나갔고 약 10년 동안 아이들은 위탁가정에 살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중학교 입학할 하면서 모두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사례3>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아방과 아동공부방 프로젝트 참여

1983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자 도시빈민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아원(어린이집)이 설립되지만 보호해야할 아동인구 증가에 비해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원주지역복지부(남영자)사무실(원주가톨릭병원내)이 위치하고 있는 학성동지역은 원주역을 중심으로 역전시장, 윤락촌, 연탄공장을 둘러싸고 작은 선술집, 포장마차등이 많았고 저소득 가정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빈민지역이었다.

원주지역복지부에서는 원주가톨릭병원과 한 팀이 되어 인근 윤락촌 여성들과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진료와 가족상담을 통한 복지욕구조사가 시작되었고 가장 시급한 것은 취학전 아동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원주가톨릭병원(원장 하이드브라우크만수녀)은 병원 내 공간을 무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유아방 운영에 필요한 인적(사회복지학과 학생과 성당레지오팀 등). 물적자원(후원자모집)을 구축하여 유아방(15명이내)을 운영하게 되었다. 부모들의 한 가지 소원은 자녀가 멋진 사각 모자 쓰고 졸업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래들이 유치원 추억을 이야기 할 때 우리아이가 추억이 없으면 어떨하냐고 몇일 만이라도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인애유아방 원주가톨릭병원내 1986년>



1988년 장소이동 (학성동지역 상가내)

### < 초등학생들의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

취학전아동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도 필요했다. 독지가의 후원으로 방 여러개 있는 단독주택이 마련되었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교사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다.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대학 4년간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과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의료사회사업, 아동. 청소년복지사업(유아방과 공부방), 지역복지사업 등의 다양한 실무를 병행하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졸업(92년) 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여성복지상담원 평창군)으로 복지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일반여성들의 복지뿐 아니라 한 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복지행정도 의미가 있었지만 가톨릭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당시 미래가 보장된 직업이라는 공무원(2년간 근무)을 포기하고 원주카리타스 산하 종합복지관(90년개관)으로 이직하면서 본당과 연계한 지역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1994~2004년까지 근무하면서 복지관 평가 최우수기관 인증 받았다.



## 2. 다가가다. Reaching out

	
<p>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lt;요한13장&gt;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u>발을 씻김</u>으로써 '<u>섬기는 자세</u>'를 보여 줌.</p>	<p>착한 사마리아 사람(루카10,25~37)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자를 <u>보고, 가엾은</u> <u>마음이 들어 다가가</u> 상처를 치료해주고 <u>보</u> <u>살펴 주었다.</u></p>

원주카리타스에서는 2003년부터 삼척지역의 10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위. 수탁을 받게 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폐광지역인 도계 탄광촌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탄광촌 생활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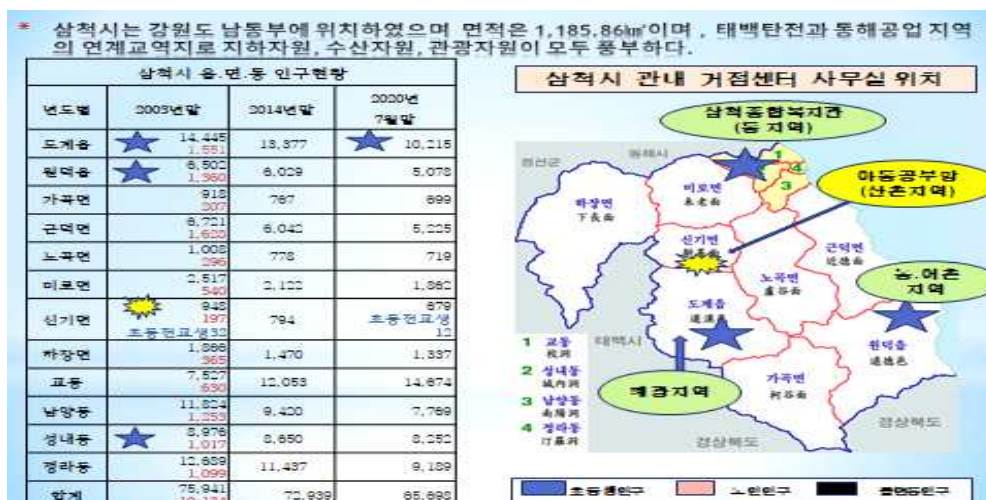
‘세상에 빛이 되어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 라는 초대교구장(고 지학순 다니엘주교)의 사목방침은 탄광촌 도계에서 살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폐광지역 탄광촌 도계를 소개하자면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탄광 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동네이다. 한때 6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동네였지만 1980년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작되며 폐광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면서 2004년 센터설립 당시 약1만4천에서 2020년 7월 현재 10,215명으로 4천여 명이 감소되었다. 현재 2개의 탄광 (대한석탄공사, 경동탄광)이 연탄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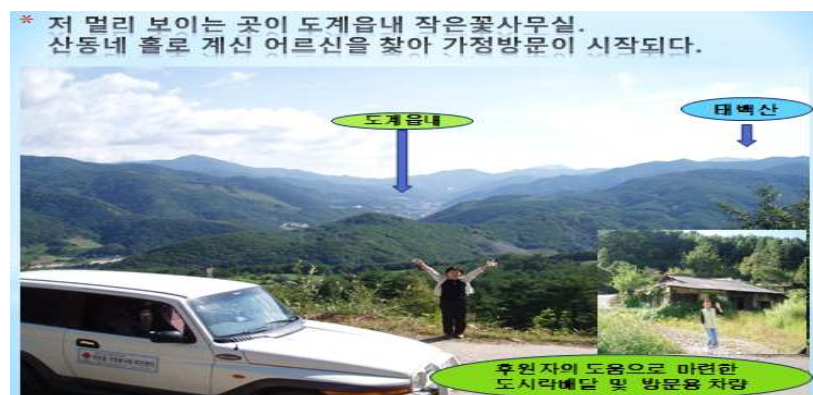


삼척시는 복합형 도시 (도.농.어촌.산촌.광산촌)이며 2004년 설립 당시 강원도 18개 시.군 중 5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할 수 있는 노인 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상태였다. 2003년부터 원주카리타스는 삼척시로부터 10개기관(삼척종합복지관,자원봉사센터,어 린이 집,이동복지관,노인응급지원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차량이동목욕, 기초푸드뱅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봉사센터)을 수탁 받아 운영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에 있는 읍.면 지역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2004 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가노인시설(작은꽃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지정받 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거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 \* 삼척사무실 (복지관내 : 4개동, 근덕. 미로면 (도시.농.어촌지역 담당)
- \* 도계사무실 (도계성당내 : 도계읍. 신기,하장면 (광산촌.산촌지역 담당)
- \* 원덕사무실 (원덕읍내 : 원덕읍. 가곡면 (농.어촌, 산촌지역 담당)



- \* 방문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평화신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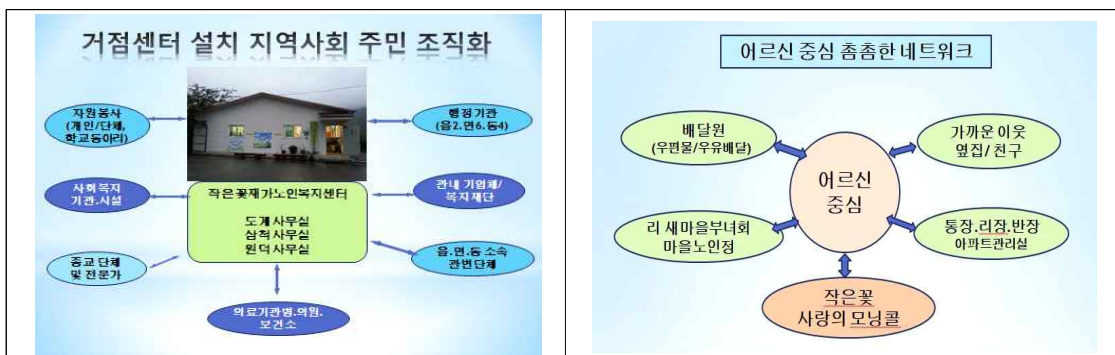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힘 좋은 차로 어르신댁 가정방문이 시작되었다. 2003년 태풍(매미.루사)으로 많은 피해를 본 삼척시 관내는 가는 곳마다 공사현장을 방불케 했다. 독거어르신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 평생을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신 어르신들은 진폐증 환자가 되어 가정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계셨고 혼자 외출이 어려워 사람이 그림다는 할아버지, 여자광부로 선 탄작업 중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하고 사는 할머니, 어부였던 남편과 자식을 바다에서 잃었지만 바다를 떠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독거어르신들이 처한 상황들은 심각했다.



어느날 폐기종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 밤10시경 갑자기 호흡이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다급한 전화가 왔다. 119는 이미 삼척으로 환자 후송중이였고 읍내 있는 병원이 2곳에 산소호흡기 요청을 하자 거절을 당하고 마침 산소통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하던 할머니 생각이나 달려가니 '할아버지 먼저 살려야 하니 얼른 가져가라' 병원 (40분거리)도착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되었다.

센터와 먼 거리에 있는 어르신은 매일아침 모닝콜을 통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가까운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어르신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갔다.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는 어르신 중심으로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아래 표 참조>



개원당시 초기사업으로 진행하였던 구조임 2005년 이후 정부의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돌봄 바우처, 장기요양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됨.



## 사례4> 도계성당과의 협력 특화사업

천주교도계성당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주요시설 모두를 개방하여 노인복지 뿐 아니라 지역복지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화사업을 통하여 독거어르신들은 세상속으로 나올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갔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물적·인적자원)이 필요했다.

### 1. 도시락배달사업 (매일 저소득 100가정에 배달) (강원랜드복지재단지원)



경동한마음봉사회는 경동탄광 막장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이다. 6백 미터 지하 갱에서 밤샘 탄 캐는 일을 하고 아침 9시에 작은꽃 센터에 와서 도시락 배달 봉사(2시간 정도)를 하고 집으로 퇴근한다. “ 탄광 막장으로 일하러 들어갈 땐 내가 살아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늘 생각했는데 도시락배달을 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어르신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오늘도 무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배달을 한다고 했다.

### 2. 작은꽃사랑방오라프리카 (독거어르신 25명 주2회 일시보호) (강원랜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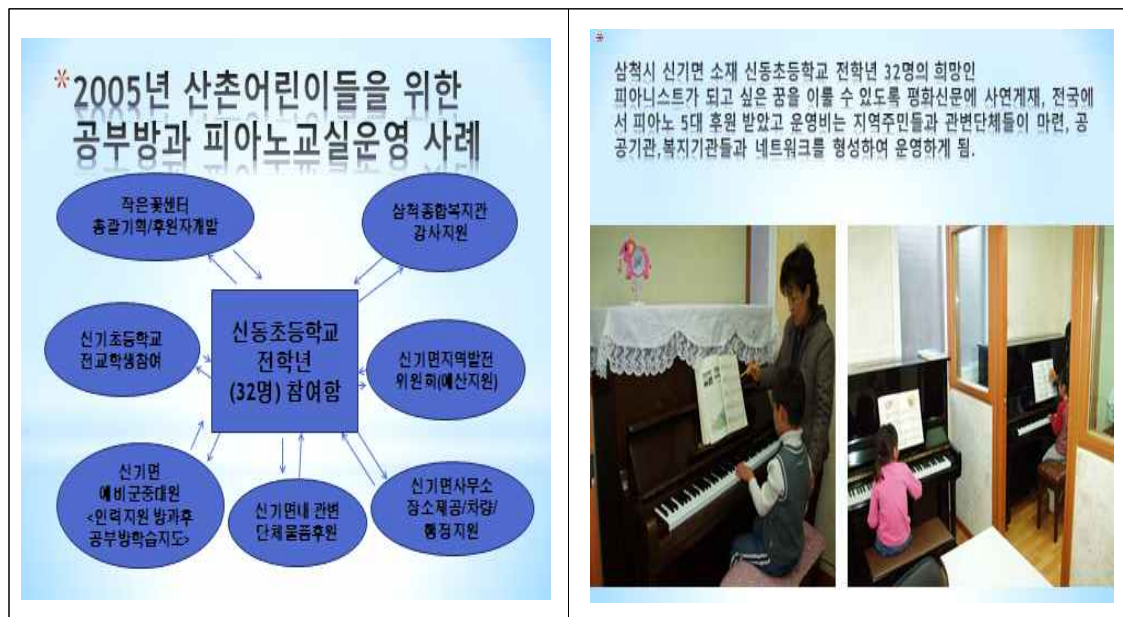


성당교육관에서 낮 동안 자원봉사자와 함께  
발 맛사지도 받으시지만~~~

오라프리카 오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 사례5) 산촌마을 아이들의 꿈 "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삼척 유명한 환선동굴이 있는 산촌에 신동초등학교가 있다. 2005년 당시 전교생 32명(2020년 현재 12명) 중, 고등학교와 예능을 배우려면 버스이동(40분거리) 삼척 시내 또는 도계읍내로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신기면(김미선면장)에서는 면사무소 별관 공간을 아동들을 위해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작은꽃센터에 협력사업으로 총괄 기획을 요청해 왔다. 피아노마련을 위해 평화신문에 사연을 보내고 강원랜드복지재단에 제안서를 보냈다. 사연을 보고 전국에서 보내온 피아노 5대로 오픈을 하게 되었다.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 3. 함께 살다. Living in Community

<사회복지의 대상> 마태오25-6 최후의 심판



- \*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것을 주었고
- \* 나그네를 따뜻하기 맞이해 주었고
- \*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주었고
- \* 굶주린이들에게 먹을것을 주었고
- \*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 \* 헐벗은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 <결론>

카리타스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고,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나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 더불어 살면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라는 초대교구장 지학순(다니엘)주교의 사목방침과 지금 여기!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소명입니다. 하고 저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새기며 카리타스 현장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가톨릭사회복지의 사명과 과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리타스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교회의 가르침인 사회교리의 원칙에 따라 단순 구호사업이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교회 사회복지 고유성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이기에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는 연대성의 원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공동선의 원리를 마음에 두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원주카리타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원주교구 사회복지 역사 안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과 특별히 가난한 이들,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끈임 없는 애정의 결실이 곧 원주교구 사회복지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었기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둘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지금 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고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카리타스 현장에서 경험한 근거들을 카리타스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신앙의 힘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동반했던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 카리타스인들이 있었기 때문였고 저에게 수퍼바이저가 되어주신 한국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와 카리타스아카데미 남영자소장님 외 모든 강사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여정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resentation 주제발표 4 /

### 토론문

“The Practice of Caritas:  
Searching. Reaching out. Living in Community.”

“삶의 현장에서 카리타스 함께 살기:  
찾아나서다. 다가가다. 함께 살다.”



토론자: 김승주 교수 (꽃동네대학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삶의 현장에서 카리타스 함께 살기’에 대한 토론문

꽃동네대학교 김승주

원주 카리타스 삼척시도계보금자리 정복희 원장께서는 40년 이상 교구 사회복지현장을 지켜 오신 실천가이며 현장전문가로서 가난한 이들,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원주교구 카리타스의 역사를 생생히 정리하여 의미 있는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발제문에 소개된 원주교구의 사례들이 교회의 사회복지 고유성을 구현하는 카리타스학의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더 깊이 공부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합니다<sup>2)</sup>.

## 1. 찾아 나서다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는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움직이기를 바랍니다(『복음의 기쁨』, 49).”

교회는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사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단순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양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 참여를 구체화 시켜 왔다.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이러한 교회의 사회 참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사회에 미쳐 왔고, 중요한 가치가 무시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진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필요한 가치와 사회 흐름의 방향성을 적절히 제시해왔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지녀왔던 역할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받아온 신뢰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핵심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평신도교령』, 8). 그러기 위해 교회는 제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해 찾아나서야 한다.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가난한 이들이 처한 시대적 여건과 환경 및 이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유연하게 이웃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왜냐

2) 원주교구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정 원장님의 카리타스학 석사논문 『지역사회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일 연구(2010)』를 참고하고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하면, 교회는 항상 그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응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사목헌장』, 4).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선적이며 구호적인 방법을 써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빈곤으로 참다운 인간발전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공동의 협력으로 자조적이면서 자립적인 삶을 개척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한국천주교사회복지백서, 15).

‘지역사회 안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를 위해 노력한 원주교구와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지학순 주교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세계에 열린 복음화 실천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갖추어 간다.

지학순 주교는 1965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마지막 회기에 참석하고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깊게 인지하였다. 광산촌과 산골 오지가 대부분인 가난한 관할지역에서,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처음엔 주교관도 없어, 성당 근처 여관방을 빌려 지냈다.

원주교구 초대교구장에 착좌하면서, 지학순 주교는 교구장 문장의 표어를 “빛이 되라(Fiat Lux)”고 지으며, 다음과 같은 사목지침을 내린다.

“첫째, 사회전반적인 면에서 적극 참여하여 정신적인 지도적 위치를 갖자. 둘째, 대중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자. 셋째, 옳고 바른 것을 숭선수범하여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는 목표가 되자. 넷째, 이렇게 선의의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자. 다섯째, 하느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활로 세상에 빛을 주게 하자.”

지학순 주교는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을 신자들의 신심생활과 교회활동에 제한하지 않았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며,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야 한다는 공의회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교회가 영적 구원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1972년 여름에는 영동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나면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sup>3)</sup>, 지 주교는 전 세계 가톨릭 구호기관(독일 미세레울과 국제카리타스 등)에 호소해 원조를 받아 구호에 앞장섰다. 지 주교는 행정기관 대표와 신·구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려, 이 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임했다. 가톨릭의 연대로 구호기금을 모았지만, 교회만의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맡긴 것이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원조기금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3) 원주교구 설정 7년 후인 1972년 8월, 남한강 유역에 집중폭우로 대홍수가 발생하여 강원 광산 지대와 충북 제천,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3개도, 13개 시군, 87개 읍면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원주교구에서만 사망자가 66명, 부상자가 330명, 이재민이 145,000명, 농경지 피해 19,645정보, 주택 피해 22,967동 등 총 피해액이 1백80억 원으로 집계될 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모색했다. 지주교가 소개한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호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지역은 이후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졌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이후 원주교구 사회개발부로 상설기구화했다.

## 2. 다가가다

“교회의 사랑실천은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을 실현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인간을 위한 구원행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거저 주어진 사랑이기에, 교회의 사랑실천도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이 거저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

발제문을 통해 여러 번 강조된 대로 지학순 주교는 1973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라는 사목교서를 통해 본당과 공소를 모든 교우, 모든 민중의 협동생활의 기지로, 공동체화의 터전으로 발전시키도록 촉구하였다. 우선 본당과 공소에 등록되어 있는 교우 전체에 대한 경제상태별, 직업별, 거주지별 카드를 작성 분류하고, 경제적으로 하층, 직업에 있어 근로자, 농민, 농어민, 영세상인, 소도시 빈민, 거주지에 있어 본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가, 어떤가 또는 어떤 근로현장에서 얼마만큼만 분포를 보이는지 대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대상 교우들의 미사 참여성적을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자료 분석을 통해 교회 자체가 ‘세상을 성화시키는 전위대’가 되도록 격려한 지학순 주교와 원주교구의 관심은 가난한 이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다. 이는 구호복지의 차원과 사회개혁운동의 차원을 포괄하는 성격으로 교육과 실천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는데, 그 다가감의 과정을 복지분야 별, 시작년도 순으로 간략히 요약해 본다.

■ 의료사회사업(1961~ ) : 원주교구를 포함한 강원지역은 교구 설립 당시 지역적으로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의료혜택의 질이 매우 낮았다. 이에 3개의 수도회(골롬반수녀회,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와 협력하여 교구 내에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시설이 전무한 산간벽지와 오지를 선정, 간호사가 직접 지역에 파견되어 함께 생활하는 벽지보건사업(1976년~1979년), 생활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핵환자들을 위해 1982년 1월 가톨릭센터 내에 ‘원주가톨릭의원’을 개원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 노인복지사업(1982~ ) : 원주가톨릭의원의 하이디브라우크만 수녀가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무의탁 결핵병증 노인을 위해 가정집을 임대해 돌보면서 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 대상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교구에서는 독일 미세레올(Misereor)재단으로부터 60만 마르크를 지원받아 1984년 무의탁



결핵병증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집’을 개원하게 되었다.

또한 80년대부터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입소를 요하나 부양의무자들이 입소 비용을 낼 수 없어 방치되는 노인, 위기가정의 노인,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처한 노인들을 우선 보호하면서 교구의 노인복지사업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의 중간 단계로서의 소규모 가정양로원, 재가센터,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게 된다.

■ 지역복지사업(1983~ ) : 아동복지사업에 집중되던 사회사업 활동들을 점차 지역의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1983년 독일 카리타스와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한 계약을 맺게 되었다. 각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부를 설치하고 지역별 담당 직원을 채용 배치하면서 지역별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 청소년복지사업(1985~ ) : 교도소에서 출소한 무의탁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교정사회사업을 목적으로 1985년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청년의집’을 개설하였다. 이후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이혼 등 해체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출청소년이 증가하자 ‘원주지역 특수청소년지도사업’과 ‘광산지역의 불우청 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세 이하의 청소년 생활시설인 그룹홈, 중·장기일시보호시설, 방과후 아동보호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 아동복지사업(1989~ ) : 재해대책사업이 끝나갈 무렵 농·어촌과 광산지역의 아동들이 적절한 보살핌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동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별개로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하게 되었고 독일 카리타스중앙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았다.

### 3. 함께 살다

“인간 불행의 여러 가지 형태, 즉 물질적 빈곤, 불의한 억압, 심신의 질병, 그리고 중국의 죽음 등은 인간이 원죄 이래로 처해 있는 나약한 본성의 조건들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며, 인간 구원의 필요를 보여주는 명확한 징표이다. 그러한 까닭에,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본성을 걸머질 만큼 동정심을 보이셨고, 또 자신을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와 동일시하셨다(마태 25,40.45 참조). 그러므로 가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또한 교회의 입장에 서 볼 때 가장 먼저 사랑하여야 할 대상이다(『자유의 자각』, 68).”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이들과 같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함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안에 현존하고 계시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교는 결국 하느님 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학순 주교를 통해 원주교구는 이미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선적인 선택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일찍이 이해하고, 시대적 상황 안에서 그 가르침을 몸소 전하며, 실천으로 옮겨,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길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함의를 구할 수 있다.

첫째, 교구 설립 초기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하며 복지적 측면 뿐 아니라 교육적, 사회참여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는 점. 둘째, 독일 카리타스를 비롯한 외국 가톨릭교회 및 원조기구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수동적인 경제적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닌, 교구와 지역이 그들과 협력해 능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했다는 점. 셋째, 원조 받은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 교회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내 타 종교, 타 분야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상호책임과 참여를 지역사회에 촉진시켰다는 점. 넷째, ‘자립을 위한 원조’라는 전제 하에 지역사회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 끝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여 단계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점 등이다.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 그리고 갇혀있는 이들의 고통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만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아닌, 몸소 그 고통에 함께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정신은 꽃동네의 창설정신과 맥을 함께 한다.

“마지막 피한방울까지도 내어놓는 수도자는 하느님이 주신 카리스마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과 죽음까지도 대신하는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뜻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카리스마, 은총입니다.<sup>4)</sup>”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는 막사이상<sup>5)</sup>을 탄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 사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호소력을 지닌 복음적 증거는 ...(중략)...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교회의 선교사명, 42항)이다. 사랑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 역시 하느님께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것이다.

4) 1996년 8월 9일 오웅진 신부 강론 중

5) 1958년 3월 1일 록펠러 재단이 공여한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필리핀 막사이재단을 설립하여 해마다 정부 공무원, 공공사업, 국제협조 증진, 지역사회 지도, 언론문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각각 5만 달러의 상금과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오웅진 신부는 1996년 수상하였다.

## 참고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1965) : Gaudium et Spes』, 김남수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교령(1965) : Apostolicam Actuositatem』, 김남수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청신앙교리성, 『자유의 자각(1986) : Libertatis Conscientia』,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사명(1990) : Redemptoris Missio』,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2005) : Deus Caritas Est』,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2013) : Evangelii Gaudi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정복희(2010), 「지역사회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일 연구」, 프라이부르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길(2016), 「원주가톨릭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학술대회 발제문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2001), 「한국천주교사회복지백서」.

## Presentation 주제발표 5

“A Successful Case of Social Work Exemplifying  
Caritas Spirit: Joy and Conflict”

“카리타스 정신으로 복지관 사회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성과: 기쁨과 갈등”



Kim, Jin Eui (Manager of Caritas Daegu Secretariat)

김진의 요셉 부장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 사무국)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카리타스정신으로 복지관 사회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성과: 기쁨과 갈등



2020. 1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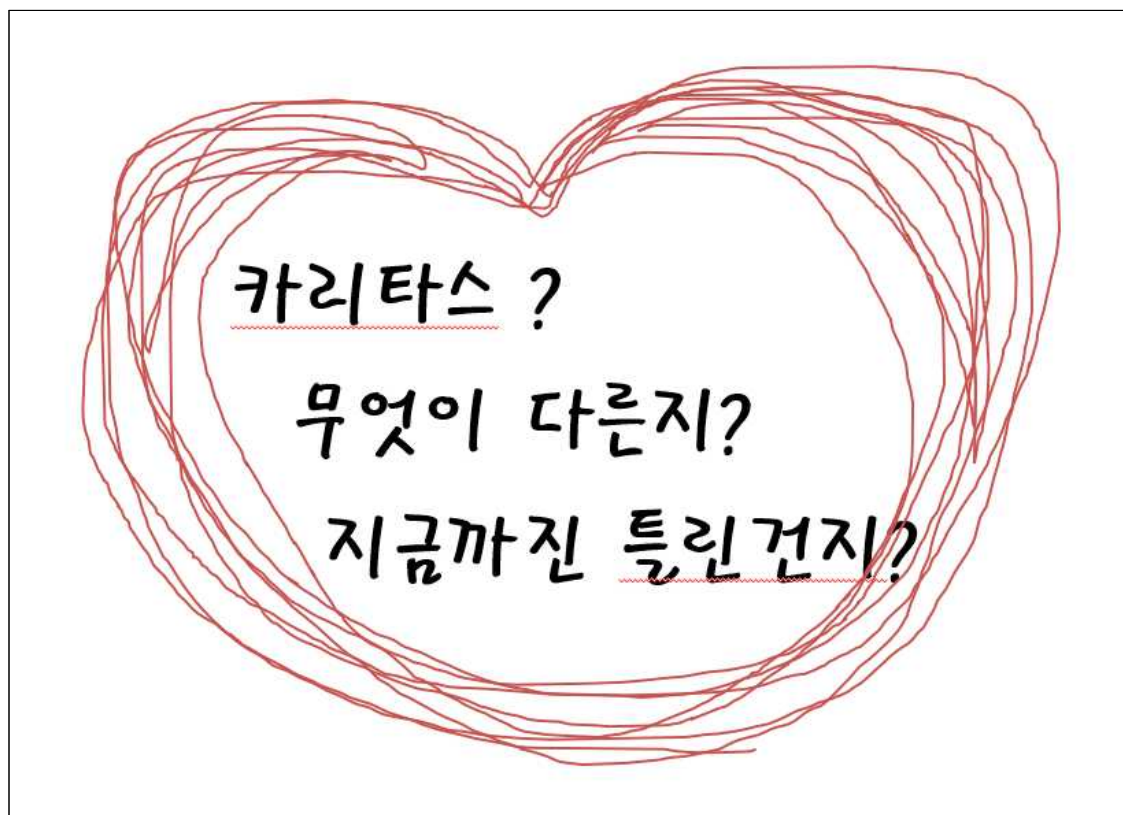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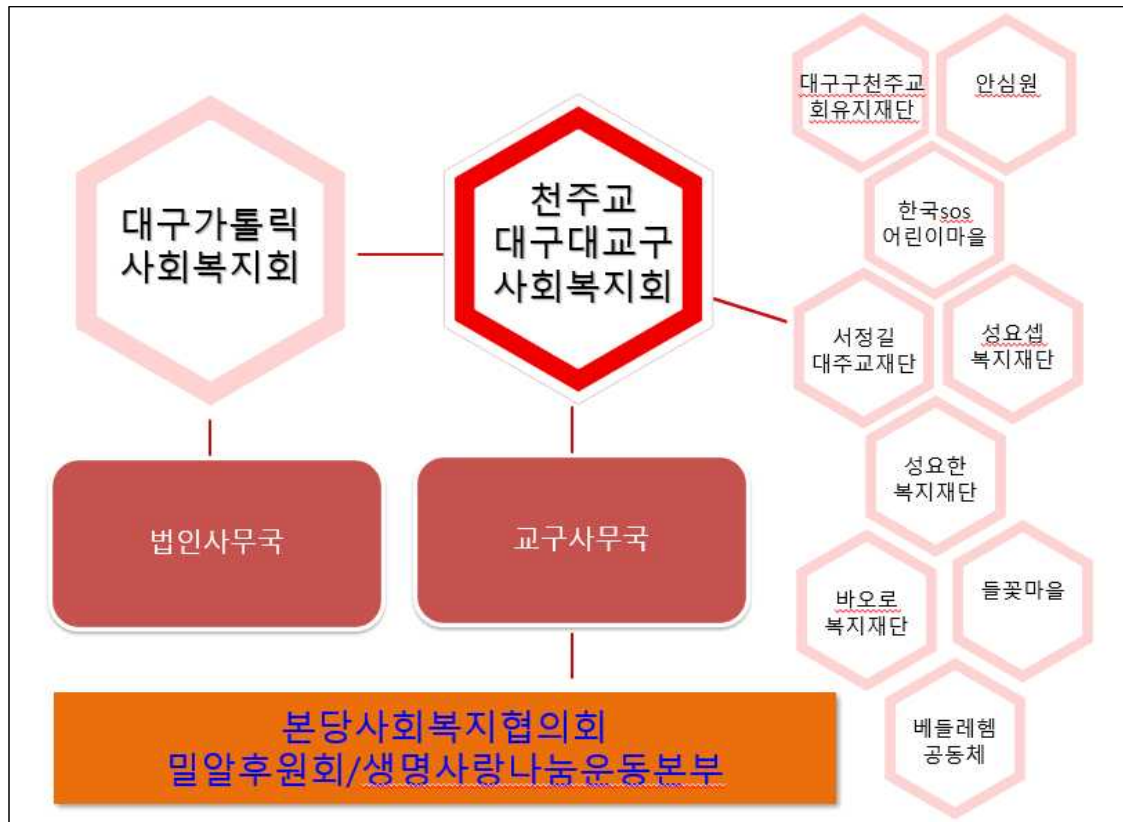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사무국  
김진의(요셉) 부장

### 김진의 요셉



1998.7-2002.12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  
2003.1-2008.3 대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08.4-2012.7 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012.8-2015.2 경북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2015.3-2017.6 경북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노인복지관)  
2017.7-2020.1 경북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2020.2-현재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사무국 부장







## 그 결과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

◆ 카리타스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 가치/원칙은 실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 틀린 것인가?

◆ 그 방향이 모두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인가?

# 구체화!

##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

### ▶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 가치

가치	핵심 키워드
정의	사회정의=본성과 사명에 따라 받을 것을 받게 하는 조건
공동선	인간 존엄성과 성장 가능성 향유를 위한 사회적 조건의 총체
통합적 인간개발	올바른 발전 =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총체적인 발전
함께 아파하기	타인과 함께 깊이 아파하며 인도적 의무를 우선적으로 인식
약자 우선적 선택	예수를 따라 약자들과 함께 존엄성 훼손에 맞서 싸울 의무
존중	인간 존엄성을 증진·옹호하는 한 모든 다름의 존중
연대	신의 자녀인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릴 것을 받아 누리는 세상 건설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반한 연대





수해복구 봉사활동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누구나 함께 같이..)

9

## 연대.. (연민-상호책임의식-공동비전-연대적 활동)



## 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의 원칙



**보다 쉬운  
이해! 적용!**

일상적인 용어나 문장

- 사례(기쁨과 갈등)



## 1) 파트너십

♣ 여기에서 파트너십이란?

- 1차적으로 카리타스 회원 조직 사이의 파트너십을 의미

♣ 파트너십 원칙의 사상적 근거

- 카리타스는 봉사공동체다. 모든 구성원이 나뉘는 부분(part)를 담당하는 주체(partner)다.
- ∴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주체답게 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공유한 관계속에서,



우리끼리부터 겸손하게, 진실로 신뢰하고 먼저 개방하되

성과에 대한 공은 함께 나눌 것인 자세와 태도.

서로 장애물을 만나거나, 오래 걸리더라도..

13

## ♣ 파트너십 원칙의 사례

### ◆ 조직구조 측면)

사회복지사목사제단 회의,

시설협 분과별 소통과 협력,

시설과 본당사회복지위원회간의 협력

### ◆ 사업 측면

카리타스 핵심가치교육(교구 전 시설),

밀알회 역사교육 순회실시,

교구 미션수립위원회

14





## 2) 보조성

### ♣ 보조성 원칙의 근거

-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더 큰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 인간은 개별적 존재다. ∴ 자기 결정과 책임 하에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 당사자, 문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문가다.
- ⇒ 더 큰 사회, 더 상위집단의 도움을 받되 개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개입을 제한하는 원칙이 필요함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동안, 필요한 만큼만 돕도록  
제도화한다.

15

### ♣ 보조성 원칙의 사례

- ◆ 법인의 과업? VS 복지관 실무책임자회의 / 시설장회의 / 각종 T/F 및 위원회...법인 운영위원회
- ◆ 전결규정
- ◆ 본당협 지도신부/지도부의 과업? VS 대리구별 지역회의/상임위원회, 교구 상임위원회
- ◆ 직원 사적모임형태의 해외원조모임 'GWD'



16



### 3) 참여(participation)

#### ☞ 참여 원칙의 근거

-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 ” 이다.  
∴ 세상에서 하느님 뜻(사랑과 정의)에 맞는 질서를 이루는데 자기 몫(part)을 해야 한다.
- 개인이 “사회의 주체이고 토대이며 목적” (비오12세, 1944)이므로 참여를 통해 자기 존엄성을 위한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기 몫은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

#### ♣ 참여 원칙의 사례

- ◆ 어르신 나들이  
(계획수립, 의견수렴, 결정, 답사, 진행, 평가까지..  
참여를 넘어 자기결정으로!!)
- ◆ 소식지  
(제작은 지역주민이, 배포는 지역어린이들이..)
- ◆ 노인복지관 강사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중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은 노인복지관 이용자 재능에서!  
노인클라이언트 방문활동은 노인복지관 봉사희망자에서!

18



#### 4) 임파워먼트(empowerment)

##### ♣ 권한/역량강화의 사상적 근거

- 존엄한 인간 = 자기 삶의 작가, 주인공으로서 삶
- 카리타스 실천의 모든 관계자는 자신에게 의미 있고 할 수 있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당사자의 잠재력을 믿고 발전시키며(역량강화)

상호조정하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권한강화).

19

#### ♣ 임파워먼트 원칙의 사례

- ◆ 이용자 대표회의, 강사회, 자조모임 등
- ◆ 직원채용시 인사위원회에 이용자대표 포함
- ◆ 어르신 직영 복지관 카페,  
이후 사회적기업으로의 독립까지!
- ◆ 칼가는 / 조경하는 / 마늘까는 / 미싱하는 어르신..
- ◆ 복지관(장)의 과업? VS 팀장/담당자/프로젝트팀
- ◆ 업무분장에 대한 초기 그림을 실무자가 그릴 기회 제공

20



## 5) 독립성(independence)

### ♣ 독립성 원칙의 근거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05), 25항]



여러 이익을 따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21

### ♣ 독립성 원칙의 사례

- ◆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지 말라는 주위의 압박에서..
- ◆ 2000년대 뇌병변장애전문 주간보호센터 개소
- ◆ AIDS 환자 쉼터
- ◆ 규정의 기계적 준수 VS 당사자의 권익  
(ex. 구상권청구 위협 vs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

22



## 6) 관리와 책무성

### ♣ 관리와 책무성 원칙의 근거

- 카리타스 조직 = “청지기”
- 우리에게 맡겨진 보조금, 후원금, 자원봉사 인력을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무를 지고 있다.



남다른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에 대해 그래야 하  
고, 그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그래야 한다. 설령 그게 좀  
부담되거나 인건과 타 기관에 부담을 주는 영향이 있더라  
도 그래야 한다.

23

### ♣ 책무성 원칙의 사례

- ◆ 이용자가 주는 간식(수고하는 직원들 드세요~)
- ◆ 업체나 유관기관이 주는 명절선물 vs 부활계란
- ◆ 사무직원만의 정기모임
- ◆ 실무책임자의 능동적인 의제생산 방식
- ◆ 소속된 각종 협의회의 투명성에 대한 적극적 견제

24





## 7) 모든 이에 대한 평등, 보편성, 공정성, 개방성

### ♣ 근거

- 평등하게 창조된 모든 이(평등 원칙의 근거)
- 불평등한 현실
- 인간다운 세상의 구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평등원칙이 지향하는 목적)



차별이 개방하고, 누구나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그런 감수성과 용기를

25

### ♣ 평등 · 보편성 · 개방성 원칙의 사례

- ◆ 노인복지관 이용자 : 약자인 노인 & 여유있는 노인  
(ex. 약자였던 노인이 여유있는 노인으로의 변화과정)
- ◆ 통합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사업 및 근로자회관, 노숙인 지원노력 등
- ◆ 조직 : 남성vs여성, 성직자vs평신도

26





## 8) 보호

법률·제도

과업 수행

개인 행동



섬기는 사람들의 안전

-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안전
- 발달·성장 가능성의 보존

☞ 카리타스 조직은 자신들이 섬기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전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주어야 할 조건을 보호하기

27

## ♣ 보호 원칙의 사례

- ① 복지관에 방화한 어린 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 ② 인권강사 양성과정 & 가톨릭 인권강사 모임 후속진행
- ③ 인권침해시 즉각적이고 개방적인 징계



28



## 9) 지역경제

♣ 지역 경제 원칙은 일차적으로 국제 원조 협력과 관련된 원칙이다.

국제간 원조를 할 때에

- 원거리 수송보다 인근 지역 조달을 우선시함.
- 인근 지역에서 집중 구매로 인플레이션 유발을 금지함.
- 지역 경제규모를 고려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규모, 종류의 지원을 피해야 한다.



의미는 소비하기, 좀 더 비싸거나 불편하더라도..  
나부터, 우리 시부터..

29

## ♣ 지역경제 원칙의 사례

- 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등 이용
- ② 지역 생산자, 상인의 생산품 우선 구매(예: 로컬 푸드)
- ③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 카리타스 카페 등



30



## 10) 창조물 보호와 환경 영향에 관한 관심

- 인간은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하느님의 모상”)이다.
- ∴ 지구와 지구의 모든 자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관리인”이다.
- 지구와 지구의 자원을 다음 세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연대책임이 있다.

⇒ 카리타스 조직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이용, 착취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과  
그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여보자**

31

## ♣ 창조물에 대한 보호와 환경 영향 원칙의 사례

- ① 쓰레기봉투 구입을 현저히 줄인 경험
- ② 태양열을 이용하는 몇몇 복지관과 거주시설
- ③ 생태적 회심에 대한 관리자, 전직원 교육
- ④ 회의/교육시 컵, 간식, 도시락 등



32



## 11) 조정

### ♣ 조정 원칙의 근거

- (국제 카리타스는) 교육, 조정, 대변의 활동을 통하여 협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책서 『최후의 만찬』 2004.9.16)
- 완전한 인간 발전이라는 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타종교들의 성원들과도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여러 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회칙 『사회적 관심』, 32항)

### ♣ 조정활동 목적

- 인간 존엄성의 보호나 증진
- 공동 지향에 따른 상호 협력으로 효과적 도움



카리타스 조직과 타 조직간, 혹은 조직내부의간의 관행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답답이 아닌 제대로된 협력조정  
관계로 나아가기

33

## ♣ 조정 원칙의 사례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적극적 참여 및 역할 경험
- ② 동의받은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후원방식은 적절한가?



34





## 12) 옹호

- ♣ 옹호의 사전적 정의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 옹호의 사상적 근거
  - 평등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



대신 욕은 함께 목소리 내어주기

35

## ♣ 옹호 원칙의 사례

- ① 주거시설 뒷산에 들어서려는 공장 “우리집 지키기”
- ② 노인복지관 앞 위험한 신호체계 “서명운동”



36



### 13) 학습과 직원개발

교회의 사회복지 기구들은 (...) 무엇보다도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전인적 교육이라는 전제하에서,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내에서 오로지 직원의 관심과 판단에 의해 참여할 교육 선정하기,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37

### ☞ 학습과 직원개발 원칙의 사례

-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운영
- ◆ 교육의 인정 : “업무연관성” vs “마음의 양성”  
(전문적 훈련 vs 잠재력을 일깨우는 성숙)
- ◆ 공문으로 온 교육 vs SNS로 홍보된 교육  
-> 내부인트라넷으로 상시 공유
- ◆ 수습직원교육/입직교육/승진자교육/학습동아리 등
- ◆ 카리타스 수퍼바이저 양성과정으로의 초대

38





## 14) 직원 보호

### ♣ 직원 보호 원칙의 근거

-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노동(조건)
- 카리타스 ‘봉사공동체’ 일원으로서 권리이며 의무



분명 관리자보다는 약자인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채널을  
갖고, 후속조치에 대해 진정성있게 임하기

39

### ♣ 직원보호 원칙의 사례

- ◆ 시설/법인 직원고충위의 실질적 운용/전직원 월드카페
- ◆ 입사시/사직시 상임이사 신부님과의 충분한 면담
- ◆ 코로나19 종사자 간식지원
- ◆ 가족친화기업으로의 인증
- ◆ 각종 T/F, 위원회에 다양한 직급/직책/근로연수 포함
- ◆ 법인채용직과 기관채용직의 동일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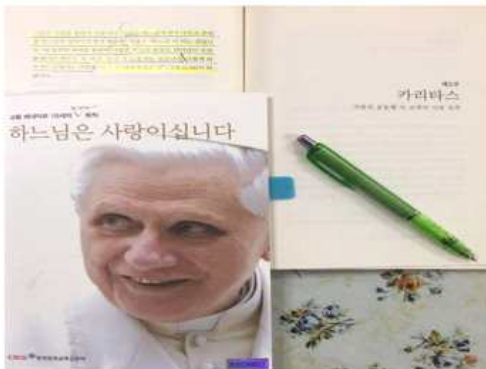


## 그 외의 노력들

-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강독
-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지원/마스크나눔
- 가톨릭사회복지대상 시상식(전국단위)
- 올해의 카리타스인(교구단위), 카리타스 뱃지
- 대구가톨릭사회복지직원대상(법인단위)
- 카리타스 세미나



41





## 기쁨과 갈등

- 타 법인이라도 같은 공동체라는 동질감을 느낄때
- 오래된 관리자보다 신입 직원들이 더욱 동의하고 참여할 때
- 외부(ex. 공무원 등)에서 당사자의 권익과 교회의 가르침을 우선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걸 보며 감동받아할때
- 직원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이유로 도전하는 예비복지사들..

- 여전히 본인소속 시설중심, 해당 지역중심, 실익만 따져서 카리타스 전체의 사업에 소극적인 일부 시설이나 동료들 만날때
- 시설내에서 각종 의사결정시 논의/결정/승인 구조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소통되지 않을때
- 각 개인의 삶은 별도로, 시설의 카리타스적인 삶은 따로 추구할 때

43

## 대구카리타스 MISSION 수립

BSC 균형성과관리모델



## 조직문화의 바탕 : 행동규범



**슬림화** : 어느 시설이, 어떤 사업이, 어떤 운영이 더욱 카리타스적인가?



나는 듣고 읽는다?  
나는 쓰고 기억한다?  
나는 행하고 이해한다!  
-The End-

Presentation 주제발표 5 /

토론문

“A Successful Case of Social Work Exemplifying  
Caritas Spirit: Joy and Conflict”

“카리타스 정신으로 복지관 사회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성과: 기쁨과 갈등”



토론자: 강석임 교수 (꽃동네대학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석임 수녀

[토론주제]

## 카리타스 정신으로 복지관 사회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성과 : 기쁨과 갈등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비전 및 실천가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 [kaswc.or.kr/](http://kaswc.or.kr/))

#### 비전

- 신명나는 복지세상! 사회복지관이 만들어 갑니다!

#### 실천가치

- 사회복지관은  
유일한 종합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향한다.
- 사회복지관은  
최고의 전문가와 최고의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지향한다.
- 사회복지관은  
주민조직화를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한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윤리경영선언

- ✓ 이용자 존중 및 보호
- ✓ 전문가로서의 직원 역량 강화
-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존중
- ✓ 실습생의 성장 촉진
- ✓ 투명경영 및 책무성
- ✓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 지역사회통합
- ✓ 민관 파트너십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심볼



Green / 초록  
안전과 평화



Blue / 파랑  
활움과 신뢰



Yellow / 노랑  
희망



Orange / 주황  
따뜻함과 건강

사회복지관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한 데 모여 이용하는 시설

여러 색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모아  
어깨동무 하는 모습 형상화

함께하는 사회복지관 강조

## 지역조직화의 기능

(서상범, 2020)

### 주민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시설 개방, 복지정보 제공  
 주민조직화 : 주민조직 운영,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주민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 교육

###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조직화 관련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사업,  
 지역복지 협의회 활동

### 자원개발 및 관리

지역조직화 관련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  
 지역조직화 관련 후원자 개발, 관리

## 일반 복지관과 카리타스 복지관 차이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는 이웃 사랑



사랑의 섬김으로 살다



동반과 공감하기

## 카리타스 인의 영성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10(활동연신부님 강의(2017. 7.))

- ▶ 인간의 존재론적 구원이 목표
- ▶ 카리타스 Worker – 착한 사마리아인의 눈으로 보기-몸에 익도록 함
- ▶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하여 빛을 발함
- ▶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 ▶ 사랑의 섬김에 전문적 역량을 갖추

## 연민에 대한 성찰



## 우리의 성찰

- ⇒ 우리는 누구인가
- ⇒ 왜 사회복지관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 ⇒ 우리를 이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 이 동기 부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 ⇒ 우리의 연민과 봉사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킨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가
- ⇒ 우리는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 참고문헌

- ▶ 한국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kaswc.or.kr/](http://kaswc.or.kr/)
- ▶ 서상범(2020).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인천시 복지관을 중심으로. 20세기 사회복지연구, 6:71-96.
-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10).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번째 회칙.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Presentation 주제발표 6

“Christian Social Work in Germany:  
Social Welfare System and German Caritas”

“독일 내의 그리스도교 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와 독일 카리타스”



Daniela Blank, Ph.D.  
(University of Freiburg, Germany)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Slide 1:**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Kkottongnae University

Christliche Sozialarbeit in Deutschland: Freie  
Wohlfahrtspflege und Deutscher Caritasverband

29.10.2020

Daniela Blank PhD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Theologische Fakultät  
Caritaswissenschaft und Christliche Sozialarbeit

UNI  
FREIBURG

안녕하십니까? 꽃동네대학교 국제 학술대회에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라이부르크대학 카리타스학과에서 근무하  
고 있는 다니엘라 블랑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독일내의 그리  
스도교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소개를 하고, 특별히 민간사회복지와 독  
일 카리타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lide 2:**

## Vorstellung

- Bachelor of Arts (B.A.)  
Social Work  
(Schwerpunkt Sozialtheologie)
- Master of Arts (M.A.)  
Caritaswissenschaft und  
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 Doctor of Philosophy (Ph.D.)



23.10.2020

www.caritaswissenschaft.uni-freiburg.de

5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카리타스학”과 “그리스도교 사회교리” 석사과정을 마친 후, 카리타스학 전공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독일카리타스 역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박사학위의 주된 내용은 20세기 초 독일의 가톨릭 본당과 카리타스 관련 공동체에서 활동한 평신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Slide 3:**



## Arbeitserfahrung

-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in (Post-Doc)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 Gleichstellungsbeauftragte  
(Diözese)
- Sozialarbeiterin  
(Ortscaritasverband)

20.10.2020 [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http://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

연구를 마친 이후에는 본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프라이부르크 교구에서 장애사목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프라이부르크대학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직업과 학업의 연계 관련 일과,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Slid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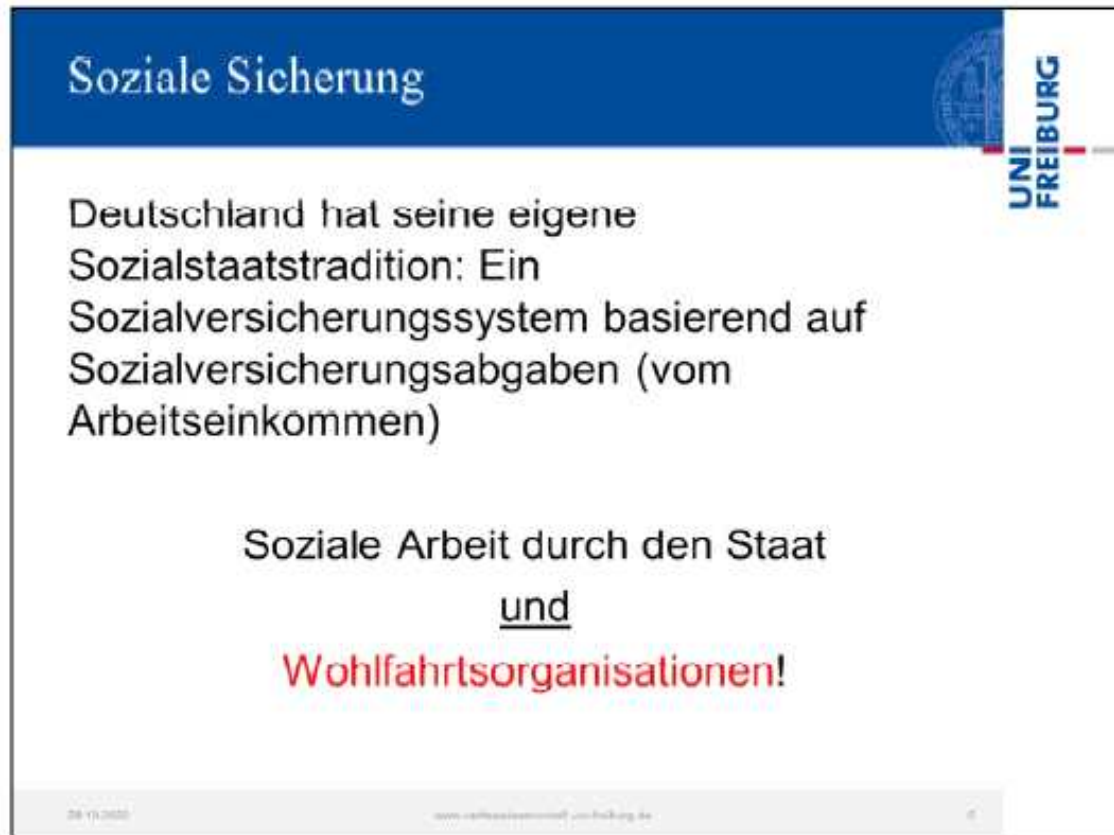
제가 일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카리타스의 중앙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해 있고, 프라이부르크 교구 주교좌 성당의 사진도 함께 소개해 봅니다.

**Slide 5:**



본격적으로 독일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Slide 6:



**Soziale Sicherung**

Deutschland hat seine eigene Sozialstaatstradition: Ein Sozialversicherungssystem basierend auf Sozialversicherungsabgaben (vom Arbeitseinkommen)

Soziale Arbeit durch den Staat  
und  
**Wohlfahrtsorganisationen!**

28.11.2022 [www.sozialwissenschaftliche-berufung.de](http://www.sozialwissenschaftliche-berufung.de) 6

독일은 고유한 복지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Slide 7: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영역 안에는 3가지의 서로 다른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공공복지기관·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윤추구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1차적인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수행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그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Slide 8:



우측상단에 표시된 비영리기관의 영역에 속하는 운영주체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서적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영역에는 ‘비영리기관, 비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뿐만이 아니라, 카리타스 시설들도 포함됩니다.



Slide 9:


## Zum Begriff Wohlfahrtspflege

Organisierte Wohlfahrtspflege ist in der BRD durch drei wesentliche Strukturmerkmale geprägt:

1. **Dualität** (Existenz öffentlicher und freier Träger)
2. **Subsidiarität** (Handlungsvorrang Freier Träger)
3. **Pluralität** (Vielschichtigkeit und Unterschiedlichkeit der agierenden Organisationen)

Vgl. Roßenecker, Karl-Heinz (1995) Spitzenverbände der freien Wohlfahrtspflege in der BRD: eine Einführung in Organisationsstrukturen und Handlungsfelder. Münster: Votum Verlag (1995) 11.

29.10.2002 [www.caritasverband.de/uni-freiburg.de](http://www.caritasverband.de/uni-freiburg.de) 10




독일 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가지 구조적인 근본 특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원성(Dualität)”을 들 수 있습니다. 이원성의 원칙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로서 공공운영주체가 존재하고, 민간주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성’은 이어 등장하는 “보조성(Subsidiarität)”의 원리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독일내의 사회복지운영의 민간주체는 공공운영주체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다수성(Pluralität)”입니다. 즉 다양한 종교기관을 비롯하여 민간의 여러 주체들이 사회복지의 운영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Slide 10:

# „Freie Wohlfahrtspflege“ ist ...

- Hilfeleistung für Mitmenschen in Not, über den Bereich von Familie und Nachbarschaft hinaus
- unterschiedlich motiviert
- nicht per Gesetz zu erzwingen – aber den Gesetzen verpflichtet
- privatrechtliche Organisationsform
- Ziele zusammen mit der Hilfe selbst:
  - Wahlrecht des Hilfe Suchenden realisieren,
  - mitbürgerliches Recht auf Helfen realisieren.

(vgl. *Fachlexikon soziale Arbeit* 2002, 350)



26.11.2020

www.caritasverband.de

11

그럼 “민간사회복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전공사전에 의하면 “민간사회복지란 위험에 처한 이웃을 위한 원조활동으로, 가족이나 이웃간의 도움을 넘어,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어지는 조직화된 원조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는 다양한 동기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활동지만, 동시에 해당영역의 법적 의무를 준수할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시설들은 사법상의 시설규정 안에서 기관·시설들을 조직화합니다. 원조활동과 관련하여 민간사회복지는 2가지의 포괄적인 원칙을 준수합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선택권의 실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같은 국민으로서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권리의 실현입니다. 여기에서 선택권이라 함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이나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종교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Slide 11:

**Funktionen freier Wohlfahrtspflege**

- **Anwaltschaftliche Funktion**
  - Individuelle Funktion (konkreter Einzelfall)
  - Sozialpolitische Funktion (Interessensvertretung, Verhinderung von Ausgrenzung, Aufzeigen soz. Nollagen, ...)
-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 **Abgrenzung zu privaten Leistungserbringern**  
(Gemeinnützigk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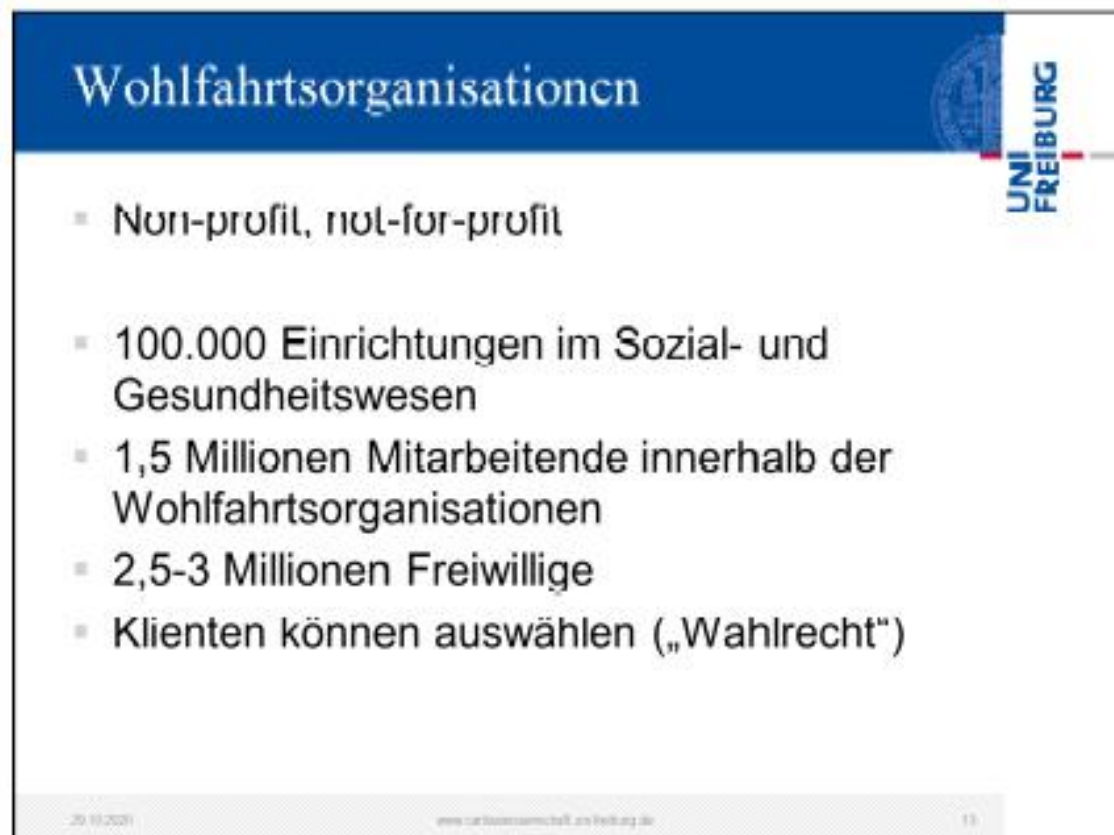
(Vgl. Griep/Renn: Das Rech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Freiburg: Lambertus, 2011.)

29.11.2020 [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http://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 13

민간사회복지의 기능: 개인적/사회정책적 변호사의 기능; 시민사회적 동참; (이윤추구) 사적인 사업주체와의 차별성

위의 세가지 주요기능은 민간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민간사회복지의 변호사적인 기능은 구체적인 사례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로비작업 등과 같은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특별히 사회적 고립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준다. 시민사회적 동참은 개인적이고, 가족·친지 차원을 넘어 자유로운 사회적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전달자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 Slide 12:



### Wohlfahrtsorganisationen

- Non-profit, not-for-profit
- 100.000 Einrichtungen im Sozial- und Gesundheitswesen
- 1,5 Millionen Mitarbeitende innerhalb der Wohlfahrtsorganisationen
- 2,5-3 Millionen Freiwillige
- Klienten können auswählen („Wahlrecht“)

29.10.2021 [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http://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 13

독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최근상황에 대해 알아본다면, 먼저 독일 내에는 대략 10만개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대략 150만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50만명에서 300만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없이는 민간사회복지의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 중에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 또는 어떤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Slide 13:

## Wohlfahrtsverbände in Deutschland

- **Deutscher Caritasverband e.V.** (Catholic Association) 
- **Diakonisches Werk** (Protestant association) 
- **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Jewish association) 
- **Deutsches Rotes Kreuz** (German Red Cross) 
- **Arbeiterwohlfahrt** (Workers welfare) 
- **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 (Joint welfare association) 



28.11.2020
www.caritasverband.de | www.diakonia.de
13

독일의 민간사회복지협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에는 6개의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협회가 있다. 독일 카리타스 협회를 비롯하여, 종교, 비종교 민간사회복지협회들이 독일의 사회복지를 주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단체들도 있지만, 그러한 단체들은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협회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이나 종교적 동기와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시설로는 가톨릭 사회복지협회인 “독일 카리타스”와 개신교 사회복지협회인 “독일 디아코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카리타스에는 대략 66만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개신교 디아코니에는 45만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Slide 14:




간략하게 독일 카리타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Slide 15:

# Der Deutsche Caritasverband e.V. =1/4=



### Gründung

- Gegründet am 9.11.1897 in Köln u.a. von Prälat Dr. Lorenz Werthmann als „Charitasverband für das katholische Deutschland“.
- Satzung des DCV:
- Danach ist „der Deutsche Caritasverband...die von den deutschen Bischöfen anerkannte institutionelle Zusammenfassung und Vertretung der katholischen Caritas in Deutschland“ (§2 Abs.1 der Satzung vom 16.10.2003, Fassung vom 16.10.2018).
- Dachverband und Verein

### Mitglieder

- 27 DUCVs + LCV Oldenburg e.V.
- anerkannte karitative Fachverbände,
- überdiözesan tätige anerkannte katholische karitative Vereinigungen und Orden,
- korporative und persönliche Mitglieder.

28.10.2020 [www.caritasverband.de](http://www.caritasverband.de) 17

독일 카리타스는 1897년 Dr. Lorenz Werthmann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시 이 조직의 명칭은 “Charitasverband für das katholische Deutschland”이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독일 카리타스는 “독일 주교회의로부터 인가를 받은 연합체이자 독일의 가톨릭 애덕실천의 대표기구”로서의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다. 독일 주교회의로부터의 인가는 창설자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독일 주교회의는 1916년에 독일 카리타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독일을 복지국가로 건설하는데 있어 동참하는 교회의 기구로서 카리타스의 책임을 부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 교구 차원의 카리타스협회가 등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카리타스 분야별 협의체, 가톨릭 연합회 등이 교구차원을 넘어 형성되었다. 또한 수도공동체와 평신도 협의체 등도 독일 카리타스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카리타스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이미 오랜 역사안에서 활동중이었던 가톨릭 교회의 사회복지기관·시설들을 상호 연합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Slide 16:



현재 독일 내의 모든 교구에는 교구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교구 카리타스가 설립되었으며, 더 나아가 교구 내 지구차원, 지역공동체 차원의 카리타스 조직도 갖추어져 있다. 독일 카리타스의 중앙회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외에도 베를린과 뮌헨에 중앙협의회회의 지부가 있다. 특히 베를린은 국가와의 정치적 협력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Slide 17:**

# CARITAS



UNI  
FREIBURG

- Präsident: Dr. Peter Neher
- 25.000 Einrichtungen in Deutschland
- 660.000 (hauptamtlich) Mitarbeitende, mehrere hundert Tausend Freiwillige



<http://www.caritas-bueren.de/beitraege/dr.-peter-neher--praesident/68288/>

Dr. Peter Neher

현재 독일 카리타스의 회장(대표)은 2003년부터 Dr. Peter Neher가 맡고 있다. 6년마다 독일 카리타스를 대표할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다.

또한 2만 5천개의 카리타스 시설과 66만명의 종사자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독일 카리타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Slide 18:



**Leitbild (1997)**

- Hilfe für Menschen in Not
- Anwalt und Partner sein für benachteiligte Menschen
- Sozial- und Gesellschaftspolitik mitgestalten
- Beitrag leisten zur Qualifizierung der Sozialen Arbeit

"Das Leitbild dient allen Gliederungen des Deutschen Caritasverbandes als Orientierung und Richtschnur und richtet sich an alle ehrenamtlichen und beruflich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Es soll ihnen die Identifikation mit den Zielen und Aufgaben des Verbandes erleichtern."

<https://www.caritas.de/glossare/leitbild-des-deutschen-caritasverbandes>

29.11.2020 [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http://www.caritasgesellschaft.uni-freiburg.de) 78

독일 카리타스는 1997년 독일 카리타스 운영지침(Leitbild)를 수립한다. 이 운영지침을 통해 독일 카리타스의 임무와 목표들이 제시되어져 있다. 본 운영지침을 통해 독일 카리타스는 다양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실천하는 기관이자, 이들을 위한 변호사요, 자립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협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에도 공헌하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카리타스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지침이 구체적인 시설에서 인지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할 수 있다. 시설의 종사자들 역시 설문조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카리타스의 운영지침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Slide 19:

**Arbeitsfelder des Deutschen Caritasverbandes**

1. Soziales und Gesundheit
2. Sozialpolitik und Digitale Plattformen
3. Theologische und verbandliche Grundlagen
4. Arbeitsrecht und Sozialwirtschaft
5. Zentrale Dienste

-----

**Caritas international**  
= eigene Organisation der Deutschen Caritas  
Hauptstadtbüro in Berlin; Vertretung in Brüssel

29.11.2020 [www.caritasservice.de](http://www.caritasservice.de) 21

독일 카리타스의 주요 활동분야에 대해 살펴본다면, 먼저 전통적으로 사회시설과 보건(요양)과 관련된 활동영역과, 사회정책과 디지털 복지의 플랫폼의 역할, 신학과 단체의 기초자료 제공, 노동권과 사회경제에 대한 참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국제 카리타스의 일원으로서 자연재해나 국제적인 긴급구호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

Slide 20:



- Teil des Deutschen Caritasverbandes
- Sitz in Freiburg
- Catholic aid agency for emergency and disaster relief (acknowledged by the German Bishops conference)
- Care for 1.500 aid projects worldwide
- Strategy: help for self-help
- Cooperating with local Caritas Employees

20.10.2001 [www.caritasnswemacht.pro-freiburg.de](http://www.caritasnswemacht.pro-freiburg.de) 20

국제 카리타스는 가톨릭 원조기구로서 독일 또한 구성원이다. 국제카리타스는 전세계에 1500개 정도의 원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600만 유로(약 752억원)를 집행하였다. 독일 카리타스는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원조사업과,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종교난 국적 성별 등과 종속되지 않게 진행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조·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Presentation 주제발표 6 /

통역 및 토론

“Christian Social Work in Germany:  
Social Welfare System and German Caritas”

“독일 내의 그리스도교 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와 독일 카리타스”



통역 및 토론: 김성우 교수 (꽃동네대학교)

“How Caritas Spirit is Realized in the Practice”

## 독일 발제자 토론문

김성우 교수 (꽃동네대학교)

먼저 바쁘신 와중에 발제를 수락하고 준비해 주신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연구교수 Fr. Daniela Blank Ph.D.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자님께서 독일 사회의 사회복지구조부터 민간사회복지에 대한 개괄과 대표 협의체인 독일카리타스의 역사와 현재 활동 및 운영지침 등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안에 소개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과 지면 관계상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다루지 못한 학문으로서의 카리타스가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주제나 현재 주된 관심사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앞선 발제문에서도 언급하고 계시듯, 독일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는, “이원성(Dualität)”, “보조성(Subsidiarität)”, “다수성(Pluralität)” 원칙 하에 민간사회복지가 국가의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고유성을 존중받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사회복지 영역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해 주고, 독일 사회의 법적 체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과 같은 법인의 고유성이 가미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영적(靈的)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spiritual well-being’을 위한 연구와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인적 돌봄’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다시금 숙고할 필요성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민간사회복지 영역안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전달주체의 내용을 통해 대해 한국사회복지현장이 갖고 있는 고민도 독일 사회 또한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요양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이미 수많은 요양원들과 주간보호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들이 증가함으로서 자연스레 시설들간의 경쟁관계도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의 다양한 운영주체들을 보면서, 사회복지 영역의 진입을 과연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카리타스의 주요 활동 분야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시설들과 종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에서부터 이러한 원인이 야기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참고: 평신도 교령 8항) 카리타스 활동의 범위와 내용과도 일치하며, 일반사회복지 또한 함께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지녀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 여겨집니다.

다시한번 발제자님들의 발표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독일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운영주체 중에 하나인 “영리추구의 목적을 지닌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과 주요사업 분야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카리타스 시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카리타스학과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진행중인 연구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